

碩 士 學 位 論 文

思考力 伸張을 위한 읽기
教授-學習 方法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玄 庸 植

2000年 8月

思考力 伸張을 위한 읽기 教授-學習 方法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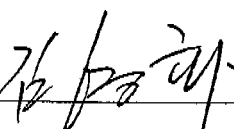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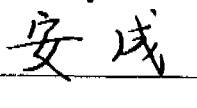

玄庸植의 教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思考力 伸張을 위한 읽기 教授-學習 方法 研究

玄 庸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2002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교수-학습'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과 지도 방법의 연구는 절실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읽은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의 수준과 질을 높여 국어과 교육에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나아가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이 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원의 특성에 따라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학습 과정안에 제시함으로써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II장에서는 현직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읽기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개진한 후,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원리를 구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 지도 전략과 수업 방법을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춰 그 신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습 모형으로는, 개념 획득 모형, 토의 학습을 통한 탐구 모형, 언어적 사고 훈련 모형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서는 창의적 읽기의 원리를 상징하는 한편 활동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관적 사고력 신장에서는 먼저 읽기 지도의 조건을 살펴 본 후, 체계적인 읽기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국어(하)’, ‘독서’, ‘문학’ 교과서에서 읽기 관련 영역 내용 체계를 분석한 후, Ⅱ장에서 제시한 수업 방법들을 참고로 하여 ‘국어(하)’의 읽기 영역 단원에 적용할 학습 요소를 ‘독서’, ‘문학’ 교과서에서 추출해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Ⅱ장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과 사고력 신장 방안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국어 교과서(하)의 읽기 영역 외에 ‘문학과 문화’의 단원도 그 대상으로 삼아 3개의 대단원에서 각각 한 단원을 선택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해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국어 교과목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읽기’의 지도 방법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주입식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원별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사 나름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 단원의 내용만을 분석 지도하기 보다는 단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어도 국어과 교과서를 통합하여 지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가 사고력 신장 교육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6
II.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8
1. 읽기 교육의 현황	8
2. 국어과 교수-학습 개선 방향	11
3. 사고력 신장 방안	16
1) 논리적 사고력	16
2) 창의적 사고력	25
3) 비판적 사고력	33
4. 교수-학습 모형	38
1) 교수-학습 모형 구안 원리	38
2) 읽기 지도 전략과 수업 모형	43
III. 교수-학습의 실제	53
1. 교과별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분석	53
1) 국어(하) 교과서	53
2) 독서 교과서	58
3) 문학 교과서	61
2. 단원별 읽기 영역의 학습 요소 적용	63
3. 교수-학습 활동 과정안	66
IV. 결론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1
<부록>	93

I. 서론

1. 연구 목적

고등학교 국어과 제6차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의 학습', '자율학습', '과정 중심', '개별화 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요즘,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법과 주입식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과 정보가 고도화·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단편적 지식의 양을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수행 평가는 사고력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종래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교수-학습이 학생 중심의 교육보다는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한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일관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는 미흡하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교사의 노력이 적고 오직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 전달에 그쳤다.

넷째, 국어과 교육 내용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보다는 언어 지식, 문학 지식의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섯째, 수행 평가가 의도하는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측정에 한

계를 보이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7차 교육과정(고등학교는 2002년 시행)은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교수-학습’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사의 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성취하기 위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국어과 교육 연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의 연구는 절실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읽기 활동이 고차원적 사고의 한 과정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읽기를 통한 사고력 함양, 사고력의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읽은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국어과 교육에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이 이론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사고력 교육은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고력은 모든 문제 해결 과정에 관여하는 정신 능력¹⁾이므로 사고력 교육이란 결국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각종 정신 능력, 특히 고등 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명완¹⁾은 사고력 교육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고 교육은 해결이 요구되는 과제 상황에서 과제 해결을 위해 습관적 수단이 아닌 새로운 수단의 탐색이나 변형 또는 구성을 일으키

1) 노명완, “교과 교육과 사고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1. 127쪽

는 정신 기능의 교육을 말한다

결국 사고 교육을 통하여 육성하고자 의도하는 고등 정신 능력은 결국 학습자들이 모종의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언어는 내용으로서의 언어 즉, 분석 대상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상징 체계로서 다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정적인 객체로 존재하는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 소통의 한 도구로 쓰이는 동적인 언어를 말한다. 진정한 교육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으로 구현되는 동적인 언어이다.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며, 언어 사용은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지적 과정이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행위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이다. 말하기, 쓰기의 표현 영역이 구성된 의미를 말이나 글로써 나타내는 지적 과정이라면, 듣기 읽기의 이해 영역은 말이나 글로써 주어진 언어 요소들이 배경 지식 속에서 재구성되는 지적 과정이다. 결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것이며, 사고의 과정은 인간의 고등 기관인 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적 과정과 동일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 행위는 언어로 표현된 지식이나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나 내용을 재구성하는 사고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의미(지식)를 구성하는 방법, 더 나아가 고등 수준의 사고 기능을 기르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의도하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은 곧 사고력 신장을 말하는 것이며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국어 교육은 언어적 사고 과정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학습자 중심의 사고력 신장에 주안점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는 1990년 이후의 연구로 한정했다.²⁾

신광호³⁾는 고등학교 국어과 읽기 학습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읽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최향임⁴⁾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사고력 교육이 언어교육에서 갖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 언어 활동 각각과 비판적 사고 능력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그 하위 개념은 무엇이며, 국어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를 밝혔다.

박수자⁵⁾는 학생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읽기 전략 지도 교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그 문헌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읽기 전략 지도의 대두 배경과 필요성, 그 성격에 관해 논하였다. 그리고 현행 읽기 지도 교재의 분석을 통하여 읽기 기능 지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대안으로서 읽기 전략 지도 이론에 부합하는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의 예를 제시하였다.

-
- 2) 그 이유는 제6차 교육과정에 적용하는데 시의성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참고로 80년대 주요 논문으로는 박동련 <각 교과별 독서문제>(1984), 고길자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1986), 김진택 <독서교육 실태 및 중학생의 국어 학습과 연계된 효율적인 독서지도 대책>(1987), 강복환 <독해요소 지도>(1987), 김재문 <국어과 교육에서의 사고력 육성 과제에 대한 재고찰>(1987), 한철우 <독서교육 연구 및 지도방안 탐색>(1988), 신규철 <국어과의 특성과 읽기 지도 기법>(1988), 박기호 <국어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독서교육>(1989) 등 다수 있음
- 3) 신광호, “읽기 학습 지도의 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고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4) 최향임,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5) 박수자,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충청남도 교육청⁶⁾에서는 18명의 학자들을 통해 국어과 교육의 본질 규명에서부터 각 하위 영역별 지도 및 과정별 필수 과목 지도의 실제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사고력 개발과 관련된 국어 교육 이론이 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일선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서부터 과정별 필수 과목의 지도와 독서 지도 이론까지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조대원⁷⁾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국어과 교육 목표 달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활동 위주의 사고력 증진을 위한 읽기 지도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명진⁸⁾은 국어과 교수-학습 형태가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과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언어 사용 기능 신장도 수준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호⁹⁾는 학습자의 사고력 개발이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특별 제작된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검증하는 현실을 탈피하여, 정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임경일¹⁰⁾은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을, 제6차 교육 과정의 심화 과정인 ‘독서’ 교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별 토의 수업 모형

-
- 6) 충청남도 교육청 편저,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서울·대한교과서(주), 1994.
 - 7) 조대원,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8) 정명진,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9) 박종호, “창의적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10) 임경일,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에 의한 읽기 지도 활성화 방안과 그에 알맞은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이론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 간혹 이론을 통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일부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 단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학교 현장 적용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국어과 교과와의 연계 지도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합 교과에 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을 모색했다. 이렇게 제시된 읽기 지도 방법을 현장 수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하)를 중심으로 단원별 읽기 영역을 분석·정리하고, 다른 국어과 교과에서 읽기 관련 요소를 추출·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폭넓은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II 장에서는 읽기 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 방향을 개진하고, 그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국어과 교과 중 읽기 관련 교과를 망라하여 적용 요소를 분석·정리하고, 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IV 장에서는 이 연구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전망하고,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7차 교육 과정에 대비한 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제6차 고등학교 국어과 관련 교과는 국어(상·하), 문학, 독서, 작문, 화법,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가 정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수 모형(제1안)¹¹⁾을 보면, 교과별 기준 단위는 공통 필수인 국어 10단위, 과정별 필수(선택)인 나머지 교과 중 문학을 인문·사회계열 공히 8단위의 과정별 필수 과목이다. 인문·사회 계열에 한하여 작문 교과를 6단위의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예시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 중 한 과목을 선택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정별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적 가치와 당해 학교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하여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과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제주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행 국어과 교육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교육부가 제시한 제1안을 따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읽기를 통한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목 특성상 국어, 문학, 독서 교과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한 문학, 독서 교과서 중 세재나 주제, 기타 관련 요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단원들을 추출하여 적용했음을 밝혀 둔다. 또한 국어(하)의 단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의 모형에서는 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혀 둔다.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1995 155쪽.

II.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1. 읽기 교육의 현황

그 동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모두는 독서를 여가 선용이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 입학에 위한 수학 능력 시험과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 따라서 이들은 교과 학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독서는 시간이 허락할 때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서는 능동적·의욕적·적극적 학습의 한 방법이다. 단순 지식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터득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데까지 그 인식이 닿아야 한다. 그런데 독서가 ‘독후감 쓰기’ 등 국어 교과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학습 의욕과 독서 의욕을 분리하여 학습을 먼저하고 다음에 독서를 함으로써 독서를 일기 쓰거나, 효도편지 쓰기와 같은 학습 이외의 과제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독서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즉, 학년이 거듭될수록 독서와 그 지도에 대한 관심은 방기되어 학습 지도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독서 지도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읽기는 국어 교육 목표인 언어 능력 신장의 바탕이 되므로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해 왔다. 읽기 지도가 4차 교육 과정까지는 읽기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내용’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읽기 지도의 체계적 방법이 없었다. 읽기 지도에 대한 구조화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강의식 수업에 의해 책의 내용을 암기식으로 주입하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능동적 사고력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12) 제주도교육청, “독서 지도 이렇게 합시다”, 1999. 9쪽.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5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종래의 읽기 내용 편중에서 벗어나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방법 습득으로 전환했다. 즉 ‘읽기·말하기·듣기·쓰기’ 등으로 기능¹³⁾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국어 교육을 혁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심의 교육은 4차 교육 과정까지의 비체계성을 벗어나는 발판을 마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내용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읽기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는 이전의 교육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교육 과정은 국어 과목을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언어 사용 기능은 의사 교환 기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 능력을 길러 주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준다”¹⁴⁾고 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기능 지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데까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성격을 확장시킨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사고력과 관계를 조명하고 그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국어과 교육의 본질과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읽기 영역으로서 ‘독서’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지도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는 국어과 교육 연구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도 방법 연구의 강구는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6차 교육 과정에서 독서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13) ‘이성영’은 ‘기능’을 현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으로 구분, 이를 독해에 적용하여, 현시적 기능은 의미 획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기능이고, 잠재적 기능은 의미 획득 과정에 필요한 심적 활동을 통하여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의미 획득에 의한 가치 형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30쪽.

14)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 I” 서울:대한교과서(주), 1992. 29쪽.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¹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읽기란 독자가 글 속의 의미를 재구성해 내는 인지 과정이다. 한 편의 글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 아니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즉 스키마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내야 하는 부분적 정보일 뿐이다. 읽기는 글의 판독과 글 속에 포함된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를 파악해 내는 사고 과정인 것이다. 읽기의 과정이 사고의 과정과 같다는 것은 읽기가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자체가 하나의 사고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읽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사고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과 고유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거나, 각각의 지도 요소에 알맞은 수업 모형을 이용해 교수-학습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드물었다. 수업 모형은 교육 활동의 설계를 위한 지침이 된다. 그리고 학습 이론을 구체화하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해 주고 그 수업이 어디에 효과적인가를 기술해 준다. 따라서 국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 고유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수업 모형이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외면되어 온 이유는 그 모형을 국어과 교육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어과 교사들이 일반 모형의 이해와 활용을 소홀히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학교에서의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통한 사고력 증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지식 제공이나 해설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탐색하고, 평가

15) 교육부, 앞의 책, 29쪽.

하고, 설득하되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2. 국어과 교수-학습 개선 방향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중등 현직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조사 대상은 교직 경력 5~10년 7명, 11~15년 16명, 16년 이상 8명 등 31명이었다. 설문 조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켰다. (1)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는? (2) 현장 수업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읽기 지도 부분은? (3) 학생에게 질문시 유도하는 응답 형태는? (4) 질의 응답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5) 질문시 학생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6) 교사가 바라는 대담과 다른 엉뚱한 대답이 나왔을 때 교사의 태도는? (7)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는? 등이었다. 위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어 수업 방식은 19명(61.3%)이 응답한 강연식으로, 토의식(16.1%)이나 문답식(22.6%)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다수 교사들이 아직도 강연식 수업을 선호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자 중심으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식의 전달 및 습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읽기 지도 부분은 교수 방법(64.5%)과 평가 방법면에 응답한 교사가 28명(25.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수 내용(3.2%)과 교수 목표 설정면(6.5%) 등에 있어서는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평가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는 것이다. 근간에 실시하고 있는 수행 평가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대변하는 대담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읽기 지도에 있어서 교수 방법, 평가 등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와 개발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3) 발문시 유도하는 질문 유형은 단어 또는 단답 어구형의 답을 유도한다는 응답이 18명(58%)으로 가장 많았다. 한 두 문장의 짤막한 서술형(19.4%) 그리고 진위형 응답(16.1%)으로 비교적 짧은 답을 유도하는 한편, 서너 문장 이상의 긴 서술형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6.5%)은 거의 없어 학생들로 하여금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질의 응답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는 교사의 설명 내용 숙지 여부가 25명(80.6%)으로 가장 많았다. 예습 및 복습 상태의 확인이 9.7%였으나, 학습자의 사고를 유도하는(학습자의 의견을 묻는) 유형은 9.7%에 불과하여 교사의 발문이 학생의 사고력 함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질문 후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생각할 여유를 주는가 하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한다(22.6%), 3~4초간의 여유를 준다(16.1%), 5~10초 정도의 여유를 준다(22.6%), 10초 이상을 기다린다(29.0%), 요구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9.7%에 불과했다. 학생에게 발문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경향(28명)으로 나타나,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 즉각적인 답을 요하는 질문(32.3%)이므로, 수업 일정 때문에(51.6%), 기다려 보아도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므로(16.1%) 등 학생이 깊이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지 않거나 수업 일정에 쫓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 교사가 의도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교사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학생을 지명하여 답을 유도한다(22.6%), 답을 아는 학생을 물은 후 지명하여 답하도록 한다(29%), 교사가 대신 답을 밝혀준다(25.8%), 과

제로 제시하여 답을 확인시킨다(6.5%)로 나타나 전체의 83.9%가 응답한 반면, 답이 나오도록 정황을 설명하고 조언해 준다는 불과 16.1%에 지나지 않아 학생 사고력 증진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묻는 항목에는 67.7%(21명)가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를 크게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성 있는 교육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에 각각 22.6%의 반응을 보였다. 기능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9.7%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앞으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 외적 요소들 - 교사 자신의 새로운 형태의 수업 모형 개발 소홀, 지나치게 교과서 내용만을 중시하는 편견,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소화시켜야 한다는 조급함 등 -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고력 함양을 당면 과제로 인정하면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 교육 과정의 잘못된 해석, 교사 위주의 주입식 수업 등으로 인해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사고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에 명시된 목표와도 거리를 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읽은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전략을 훈련시키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국어과 교육에서 읽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지도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읽기는 씌어진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해 내는 과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어, 어절, 단락, 전체 글의 단계를 거쳐 차례대로 글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읽기에 관한 이론들은 읽는 동안에 글 속의 정보들이 수동적·자동적으로 독자에게 유입되는 것이 아

니라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글 속의 정보와 상호 작용하여 이해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글 속의 내용은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며, 다만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적 정보’일 뿐이다.

읽기 지도는 이러한 독서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서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할 때 읽기 지도는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읽기의 이해 과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의 읽기 이론들은 독자가 인쇄된 문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해독하기만 하면 글은 저절로 이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만을 가르쳤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은 읽기의 과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효율적인 읽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전 지식 혹은 경험적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제시된 정보를 더욱 잘 기억하며 추론적 질문에 답하는데 능숙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경험 영역에 대한 지식 및 사고와 관련되는 지식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르쳐야 한다. 바람직한 사고 성향을 기르도록 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 조작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글의 구조를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뜻하는 동시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가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의 구조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안성수는 현대 소설의 교수방법에서 표상 형식을 위한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표상 형식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촉진시키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와 해석의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단순한 언어 일변도의 해석과 설명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한 표상 형식을 병용할 경우, 소설이론과 소설 작품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한층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오감을 활용한 표상 형식의 다양화는 수용자들의 창의력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심층적인 독서를 통하여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앞으로 소설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관념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표상 방식을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¹⁶⁾

셋째, 읽기 과정의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 독자가 자신의 독해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글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상위 인지 기능들을 읽기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¹⁷⁾



- ① 읽는 목적 확인하기
- ②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 확인하기
- ③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 ④ 이해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자문하고 점검하기
- ⑤ 이해되지 않을 때 스스로 적절한 대책 세우기

넷째, 어휘력의 지도가 필요하다. 어휘력은 독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휘력과 독해력은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읽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어휘 지도가 필요하다. 문맥의 의미를 유추해 보기도 하고, 국어 사전을 항상 옆에 두고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주

16) 안성수,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1999.

17) 조대원, 앞의 논문, 60쪽.

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섯째,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가 필요하다. 언어 사용의 모든 기능들은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이들 한 영역의 학습은 다른 영역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읽기 학습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글쓰기를 실천해 봄으로써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학생 중심의 읽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기능의 신장 및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언어의 개념이나 기본 원리를 주입시켜 왔던 과거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 스스로 제재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평가하고 비판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결국 국어과 교육의 문제점은 대부분 목표 불명의 막연한 수업 지도를 하고 있고 지나치게 교사 중심과 교과서 독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 단원 매 시간의 교수-학습 목표를 인지하고,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해야 한다. 또한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사고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사고력 신장 방안

1)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란 개인적 편견, 그릇된 정보나 외적인 간섭 없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고차적 사고 기능을 강조할 때 지칭하는 사고 기능은 대개 이 논리적 사고이

다. 18) 개념과 개념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판단)이 도출되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며, 어떤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추론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라 부른다. 합리적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주장된 명제의 논리적 상호 관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 사고는 귀납적·연역적 추리와 관련된다.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반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는 보다 넓은 비판적 사고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사고력 교육이나 고차적 사고 기능을 강조할 때는 이러한 논리적,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지칭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주로 측정하려는 사고력 평가도 주로 이러한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 모형으로는, 개념 획득 모형, 토의 학습을 통한 집단 탐구 모형, 언어적 사고 훈련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개념 획득 모형은 학생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고 수용하게 되는 자극, 사건 경험, 정보 등을 분류하고 변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것²⁰⁾이다. 실제 학습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이 개념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

개념 학습이란 단순한 명칭이나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거나 고등 정신 기능의 육성에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개념 학습은 논리적 사고력 지도에서도 학습 활동의 핵심 과제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니다.

개념 학습의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은 주변의 정보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 학습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획득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상위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보다는 하위 개념이나 구체적이며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하고 체계

18) 김영채, 박권생,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 전략”, 교육과학사, 1992. 155쪽.

19) 노명완, “국어과 교육과 사고력 신장”, 충청남도교육청, 1994. 62쪽.

20) 박성익·권낙원, “수업 모형의 적용기술”, 성연사, 1989. 68쪽.

있게 제시해야 한다.

우선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개념을 파악한 후, 선정된 개념들 간의 관계나 개념들 사이의 종속 관계를 밝혀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등의 계열성을 세분화해야 한다. 교과 영역 내의 개념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교과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중요한 개념들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더욱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개념 선정을 위하여 교사는 '앞으로 학습할 교과 내용이나 다른 교과 내용의 학습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만 하는 개념인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등 개념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서는 개념의 중요성, 연계성 및 교과 내에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르칠 개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가르치는 데 소요되는 학습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만일 선정한 개념이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 그 개념의 하위 개념부터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상향식 모형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사의 전략이 필요하다.

개념 획득을 위한 수업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²¹⁾이 있다. 첫째, 개념에 해당되는 어휘를 말하도록 한 후, 그 개념에 해당되는 도형이나 그림을 보여준다. 둘째, 일련의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을 제시한다. 본보기를 선택할 때는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예외적이거나 관계가 없는 자료들을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즉, 본보기나 본보기가 아닌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개념은 쉽사리 학습될 수 있다. 직접적인 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개념과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단서나 문자화된 단서를 사용하면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된다. 셋째,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본보기만을 변별해 내도록 요구한다.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들을 동시에 제시할 때 학생들은 개념의 속성을 쉽게 변별

21) 정명진, 앞의 논문, 31~32쪽.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은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의 변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속성을 쉽게 동일시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개념의 정의를 진술하도록 한다.

위 사항이 끝나면 다음으로 적절한 평가 절차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학생들은 대상, 사물 정보, 생각 등을 범주화하는 능력면에서 개인차가 많다. 따라서 어떤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함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함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각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정명진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을 분류하는 평가 방법²²⁾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주어진 두 개의 물건이 어떤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상이한가?
- ②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③ 만약 두 개를 짝지을 수 있다면(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④ 어떤 것들이 같은 유목(類目)에 속하며 그 이유는?
- ⑤ 같은 유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 유목에 속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 ⑥ 왜 그들을 모두 한 유목에 속한다고 보는가?
- ⑦ 한 유목에 속한 목록들을 총칭할 수 있는 단어나 이름을 제시할 수 있는가?
- ⑧ 혹시 그 중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분리시킬 수 있는가?
- ⑨ 왜 그와 같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가?
- ⑩ 분류된 목록들을 하나의 계열로 정리하고 나서, 혹시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정리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 ⑪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르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 ⑫ 왜 이 목록을 저 목록과 같이 놓았는가? 역시 다른 목록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⑬ 어떤 이유에서 이것들은 서로 같은가?

22) 정명진, 앞의 논문, 33쪽

⑭ 어떤 이유에서 이것과 저것은 서로 다른가?

⑮ 그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들은 또한 다른 면에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가?

둘째, 토의 학습을 통한 집단 탐구 모형은 학생들이 집단의 일원으로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데 근본 취지를 둔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 다양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학습하는 데 있다. 또한 수업에서의 주도권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양시키는데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수업 형태이다. 즉,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논리적인 사고력 지도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모형은 토의 수업 형태로 행해지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탐구 과정을 학습하고 그 과정이 주위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독창성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질문과 대답을 분석적으로 듣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집단 탐구 과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고, 가능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속도가 각자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단계에서는 소집단별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며, 때에 따라 어떤 단계를 간략히 넘어갈 수도 있다. 토의에서 교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토의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자료의 선정, 토의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료의 질에 따라 토의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토의 자료 선정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자료가 불충분할 때 교사는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토의 활동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토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조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 수업 도중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통찰력,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분명한 판단력, 토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토의에 참여한 동료들과 친근감을 느끼며 교과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동료들 간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보다는 친근감을 가질 때,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면, 학생들은 토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모든 학습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가급적 수업 시간 이외에 비공식적인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참여 의욕을 조장하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좌석을 배치할 때도 토의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석이 이동식이라면 마주볼 수 있도록 반원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

넷째, 토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의 주제나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탐색하도록 유도하며, 각자가 준비한 자료나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다.

다섯째, 토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너무 많은 발언을 하게 되면, 토의 수업이 강의식 수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일대일 대화 형태가 되어 학생들에게 수동적 태도를 갖게 만들고, 본래의 토의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토의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억제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타학생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각각의 탐구 집단이 탐구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활동의 전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23)

- ① 각 집단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 집단의 구성원들이 타협을 하고 있는가?
 -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가?
 -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기로 결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 탐구 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이 원활히 진척되고 있는가?
- ② 학생들은 각자가 집단 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스스로 탐구를 시작하였는가?
 - 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탐구 활동에 적합한 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는가?
- ③ 학생들은 수행하고 있는 일에 동기화가 되어 있으며, 또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바쁘게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솔선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가?
- ④ 집단 구성원간의 탐구 활동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집단 구성원간에 싸움이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가?
 - 집단 구성원간에 의견 차이는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가?
 - 집단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편안하며 관대한가?
 - 남의 발언에 경청하고 있는가?

23) 박상의·권낙원, 앞의 책, 186~187쪽

- 집단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집단 전체의 과제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탐구 활동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동료나 교사 앞에서 그들의 탐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발표를 통하여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 해석하는 기능, 결론을 유도하는 기능, 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다. 더불어 탐구 결과를 중심으로 극화, 연극, 신문, 만화, 그래픽 형식 등 다양한 제시 방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고, 새로운 흥미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토의 수업의 일반적 절차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주제 결정 단계

- 토의 목적 확인
- 토의 주제(화제) 결정

② 안내 단계

- 토의 방식 결정(토의 형태 결정)
- 집단 편성 및 역할 분담
- 토의에 필요한 준비물(읽기 자료, 기록지 등) 확인
- 토의의 구체적 절차 확인(교사의 설명)

③ 토의 전개 단계

- 집단별 토의 주제 및 내용 확인
- 집단별 구체적 토의 절차 확인
- 집단 내에서의 역할 분담
- 개인별 사고
- 집단 구성원간의 토의

④ 정리 단계

- 집단별 토의 결과 정리 발표

- 집단별 토의 과정 반성 및 평가
- 학급 토의 결과 종합 정리 및 통합적 지도
- 학급 토의 과정에 대한 반성 및 평가

셋째, 국어과의 언어적 훈련 모형은 학습자의 지적 사고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표현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국어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교과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활동이 국어과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하는' 교사보다 '교육받는' 학생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육받는' 주체가 스스로 탐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신장이 요망된다. 즉, 국어과 교육은 각 영역의 지도를 충실히 하면서도, 특히 언어 사용 영역에서는 의사 교환 기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의 신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언어적 사고력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지식 또는 의미의 회상이나 재인(再認)이고 그 다음 단계는 회상이나 재인된 지식 또는 의미를 소재로 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의미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이나 이해 과정은 곧 이 두 단계 사고 과정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들기와 읽기는 단어 수준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보다 단위가 큰 문장이나 문단 또는 글을 구성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서, 곧 언어적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 수업 모형은 국어과의 여러 영역 중 주로 말하기 단원 지도에 적절하며 그 외의 일반 단원에서도 말하기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변형·활용할 수 있다.

언어적 사고 훈련 모형에서 교수-학습 과정은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노명완, 앞의 책, 49쪽.

- ① 도입 :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확인, 주의 집중, 선행 학습과의 연계
- ② 전개 : 언어적 사고 훈련 모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 사고, 언어 표현의 각 단계가 반복·순환되도록 지도한다.

인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혹은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과 상황의 분석이 필요하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간단한 시범을 보일 수 있고 언어 및 개념적 지식을 제공해 원리의 인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고 단계는 크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는 확산적 사고에서 수렴적 사고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확산적 사고 활동으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하기, 정보와 자료의 타당성 판단하기, 문제 구체화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수렴적 사고 활동으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선정하기, 그 정보와 자료를 조직하기, 메모하기, 기억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정리 및 평가 :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을 통해 성취도를 확인하며 총괄 평가의 결과를 활용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근거 자료로 삼는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말하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말하기의 형식과 목적을 고려하여 교사가 설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가의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시범을 보인 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평가 기준표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는 교육 과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피이드백해 주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창의적 사고력

창의성이란 어떤 주어진 체제 내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할 산물을 만드는 능력 또는 과제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실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아내거나 유사점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아이디어들 사이의 어떤 공통성

을 발견하여 기존 요소를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란 가치 있는 것을 말하며 산물이란 그것을 창출해 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로 하나의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말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은 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산물은 기존의 체제 내에서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그 변화는 그 분야에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지식 체계를 과정적 지식과 그의 산물인 지식 자체로 볼 때, 과정적인 지식을 수행할 수 있고 비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의 창조력을 소유한 인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²⁵⁾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의도하는 사고를 말한다. 창의적 사고의 강조점은 새롭다는 데 있다. 이 사고는 무의식적인 상징을 재배열하는 일이 많다 초기에는 큰 진전이 없으나 우연적인 상황에 의하여 빨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의식 속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통찰이라고 부른다. 통찰 즉, 새로운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창의적 사고의 특징이 된다.

창의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와 비교해 보면, 창의적 사고는 확산적이지만 비판적 사고는 수렴적이다. 즉 전자는 새로운 어떤 것을 생성하길 모색하지만, 후자는 이미 있는 것의 가치나 타당성을 평가하기를 모색한다. 전자는 수용된 어떤 원리를 이따금 깨달음으로써 일어나지만, 후자는 수용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일어난다.

결국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통합하고 확장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읽기는 뚜렷한 목적 의식 즉, 새로운 것을 산출할 목적으로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므로 텍스트의 의미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된다. 유의

25) 교육부, “과학 영재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1994. 8~9쪽.

할 점은 창의적 읽기를 어떤 기발하고 새로운 결과의 산출, 그 자체에 국한시켜 결과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읽기를 사고의 과정으로 본다는 전제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글의 의미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읽는 과정이다. 나아가 통합과 확장을 통한 새로움의 창조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고차원적 읽기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읽기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철우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⁶⁾

- ① 가능하면 언제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라
- ② 다양한 사고를 하도록 중용하라 즉 일방적인 대답으로 이끄는 방법을 피하라
- ③ 대답을 기다려라. 대부분의 교사들은 1분 이상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심도 있는 사고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창의적 사고를 아주 억누를 것이다
- ④ 창의적인 사고를 조장하기 위하여 재진술, 극화, 다음 장면을 쓰기 등과 같은 사후 검토 활동을 사용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스토리 혹은 주제를 통합할 수 있다.
- ⑤ 구성, 주제 등에 관한 정서적 반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과거에 비슷하게 경험하였던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라
- ⑥ 역할 연기도 정서적 반응을 촉진한다.
- ⑦ 하나의 사후 독서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마치 등장 인물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쓰게 하라
- ⑧ 새로운 독서 자료를 소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세트들을 이용하는 것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드라마 세트들의 이용은 예를 들면 에드가 앨런 포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26) 한철우·천경록, “열린 교육, 토론 학습을 위한 독서지도방법”, 교학사, 1997. 248~249.

촛불을 켜고 무시무시한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장을 읽기 전에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을 연주하는 것 등이다

- ⑨ “만약에~이라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은 다양한 사고 방식을 조장할 것이다.
- ⑩ 창의적인 입기와 정서적인 반응을 촉진시키는 과제들-벽화, 투시화, 비누나 진흙모델, 테이프 녹음, 포스터, 놀이, 지도, 게임, 체크버, 일기, 영화, 슬라이드 쇼, 신문, 사설, 연극, 노래, 무용 등-은 창의적인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독서란 독자가 글 속의 의미를 재구성해 내는 인지 과정이다.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호 작용하여 글 속의 의미를 재구성해 내는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읽기의 심리적 과정을 검토하고 반영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자의 정확한 해독이 곧 이해라고 본 지금까지의 이론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둔 수업 모형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들은 읽기의 심리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읽기 학습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지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결과보다는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것은 읽기 지도의 목표가 단순한 문자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읽기 지도의 목적이 글에 대한 지식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기능 그 자체에 대한 지도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으로서의 읽기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여러 학자들의 창의적 사고력 개발의 원리를 참고하여 창의적 읽기 지도의 원리를 상정하는 한편 그 방법(절차)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창의적 사고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계적인 암기력보다는 창의적 사고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동기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나친 간섭이나 공식화된 학습 방법의 강요는 창의적 사고를 저해한다. 기발한 착상이나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의문, 기상천외한 질문, 학습 목표와는 거리가 먼 듯이 보여지는 학습자의 사고 등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사는 교재 내용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 사고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발견과 설정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특출한 재능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나아가 창의력은 반드시 발견이나 발명 등에 의해 산출된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경험하는 과정에 새로운 뜻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문제 해결에 있어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다섯째, 건설적인 비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비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물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최선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한 방법이다.

여섯째,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진작시켜야 한다. 창의적 사고는 독립된 변인이 아니라, 사고의 여러 과정 또는 위계 속의 하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곱째, 명제적 지식보다는 과정적 지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고나 활동의 결과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덟째,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학습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창의적 사고 과정이나 활동 결과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해 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읽기 지도의 원리와 관련하여 활동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반응 촉진 활동을 들 수 있다. 독자들은 글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간다. 이런 활동을 돕는 것으로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진 기교재를 동원할 수 있다. 기교재의 활용은 독자의 반응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바를 뛰어 넘는 창의적 결과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독서를 할 때에 머리 속에 영상을 떠올린다. 이렇게 떠올린 영상(심상)을 독해에 활용할 때 학생들의 이해력은 증진되고, 과거의 경험에 관한 기억과 상상력이 증가된다. 즉, 감각 활동을 통한 학습은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시킴은 물론,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한 자발적 노력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감각 활동을 독서에 연계시킨다면, 학생들은 읽기 학습에 능동적 자세를 갖고,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활동을 동료들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읽기 이해 능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어떤 문학 작품을 영화화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중간 중간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시를 감상하기에 앞서 시낭송 테이프를 들려주고, 시의 분위기 등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배경 지식은 학습자들이 모호한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주고 필요한 문장 상호간에의 추론과 예측, 그리고 문장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독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박종호는 이러한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읽을 글에 대

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미리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는 예비 독서 계획을 구안하였다.²⁷⁾

- ① 읽을 텍스트의 핵심 단어, 구, 그림 등을 선정한다. 학생들에게 선정된 단어나 구, 그림 등에 관해 말하게 한다 이 과정은 다음의 3단계 과정을 따른다.
 - 단계 ㉠ 그 개념에 대해 갖는 최초의 연상을 말하게 한다.
 - 단계 ㉡ 최초의 연상에 대한 반응을 말하게 한다
 - 단계 ㉢ 개념에 대한 지식을 재형성한다.
- ②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목적을 스스로 세워 보도록 한다 그들이 읽을 때 발견해 내거나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한다. (혹은 쓰게 한다)
- ③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

셋째, 예측 활동을 들 수 있다. 예측하기란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실이나 표현을 근거로 숨겨진 내용이나 그 이상의 사실, 정보, 표현 등을 추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가설 세우기로 정의할 수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글의 내용에 대한 예측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글의 이해와 의미 획득에 있어 도움이 된다.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해서 더 발전된 정보를 창조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이나 부분적 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완결된 정보를 예측하는 것 등은 창의적 읽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이런 활동은 교사의 학습 전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능숙한 독자들은 읽고 있는 문단의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일은 다음에 올 단어나 다음에 일어나게 될 사건 혹은 이어지게 될 다음 문단 전체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많은 이해의 기능들처럼, 이것은 독자가 현재 읽고 있는 것의 내용과 구조

27) 박종호, 앞의 논문, 53~54쪽.

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 또 독자가 능동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를 요구한다.

글의 문맥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기능은 예측의 범주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는 단어의 뜻을 확정하는 데 문맥에 의존한다. 예측을 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배경 지식을 고무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읽고 있는 글의 이해를 위해 배경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한철우 등은 예측하기의 지도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⁸⁾

- ① 읽을 글을 학생들의 독서 수준에 맞게 작은 부분들로 나눈다.
- ②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방법의 목적을 말해 준다. 즉, 그들이 사전 연습과 예측하기, 그리고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 독서를 할 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와 글의 목차, 제목, 삽화의 도움 등에 관해 사전에 개관해 보게 한다.
- ④ 학생들은 사전 개관과 배경 지식에 기초해서 읽을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 ⑤ 칠판에 예측되는 내용을 적는다.
- ⑥ 학생들은 글의 첫 번째 부분을 읽는다
- ⑦ 학생들이 문맥을 이용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서 읽기 전에 어휘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⑧ 글의 첫 부분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 예측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토의해 본다.
- ⑨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⑥번에서 ⑧번까지의 단계를 반복해서 적용해 본다

넷째, 유추하기를 들 수 있다. 언어 활동은 창조이다.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모방, 재인식이라면, 그 다음에는 아직 배우지 않은 말을 이해하고 사용

28) 한철우·천경록, 앞의 책, 197쪽

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유추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또 필요하다. 특히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지식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빠르다.

기지로 미지(未知)를 유추하는 것은 비유의 작용에 의한다. 대체로 우리가 미지의 말을 아는 것은 주로 이 비유의 방법에 의한 발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계가 있는 말에 의해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표현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유추하기 활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²⁹⁾

-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글을 읽을 때 이미 자신이 읽었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 ②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유추를 통하여 설명한다(예 : 테니스와 탁구 게임, 야구와 발야구 등)
- ③ 앞으로 읽을 글의 핵심을 제시하고 어떤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 ④ 학생들의 대답을 명료화(조직화)한다. 학생들에게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 준다.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 ⑤ 학생들은 글을 읽는다

창의적 읽기와 관련된 활동에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창의적 읽기를 지도하는 교사는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읽기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독립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읽기를 지도하는 교사는 창의적 읽기에 대한 다양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방법들을 구안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3) 비판적 사고력

29) 박종호, 앞의 논문, 58쪽

비판적 읽기란 이 세상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자가 반성적 회의로 글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표현, 구조, 가치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읽기³⁰⁾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비판적 사고는 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 또는 그 문제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아가, 저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읽기의 출발점이 된다. 저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 독서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판적이란 비난이나 공격적이 아니라 저자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음미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읽기 지도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체계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비판’은 주어진 대상을 각 요소로 분석하여 그것과 전체와의 관계를 인식의 정당성에 비추어 규정·평가하는 일이다. 독해의 원리 중 비판적 독해는 언어로 표현된 글을 비판하며 읽는 것으로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이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에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맞춤법 등 문법상의 오류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판의 주안점은 글의 주제나 목적 등이 논리적으로 주장·설명되고 있는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합당한지 등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분적 오류에 치중하다 보면, 글의 핵심을 지나치게 되고 지엽적인 지식 전수의 수업으로 흘러 본래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위한 기회 제공을 많이 해야 한다. 이숙안³¹⁾은 다음과 같이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가 학교 교육

30) 이숙안, “비판적 읽기 책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7쪽

31) 이숙안, 앞의 논문, 12쪽.

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잘 조직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때,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결국 전략적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하겠다.

셋째, 구체적인 비판적 독서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독자가 된다. 더 나아가 글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실 혹은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보도록 한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책읽기란 사고하는 것이며, 사고는 口述 또는 記述된 언어로 표현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의 반응을 표현해 보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판적 독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되어 있는 어떤 진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상반된다 하더라도 진술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며, 감정적·주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여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 내용의 조직 방식, 내용의 표현 방식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³²⁾

다음으로 체계적인 비판적 읽기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한 편의 글을 올바르게 수준 있게 비판하며 읽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타당

32) 박영목, “독서”, 교학사, 1996, 156쪽.

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언어 사용 그 자체와 관련되어 표현된 언어를 기준으로 '내적 증거'와 표현된 언어의 바깥에 있는 사용자 또는 환경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외적 증거'가 있다.

내적 증거에 의한 비판은 비판의 증거를 글 자체의 내용에서 찾는 것으로, 첫째,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내용의 정확성과 관계의 정확성으로 구분된다.

내용의 정확성은 글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 또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전체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에 해당된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실제와 환상의 판별도 이에 해당된다.

관계의 정확성 비판은 여러 내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다른 것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관계의 정확성 문제가 된다. 이런 차원의 판단은 내용의 전개 및 조직이 얼마나 논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 적절성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를 표현한 내용 사이의 일치 여부에 대한 비판이다.

외적 증거에 의한 비판이란 비판의 증거를 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글 외부란 저자나 독자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범주를 넘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규범, 가치, 문화, 도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적 증거에 의한 비판이란 글에 나타난 저자의 개인적 입장, 관점, 판단, 가정 등을 보다 더 큰 사회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타당성에 대한 비판과 기대·가치·수용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타당성 비판은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 문화적 척도 등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글쓴이의 입장이나 관점은 올바른가, 잘못된 과정이나 전제는 없는가, 그 내용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도덕이나 윤리 등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으로 비판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대·가치·수용에 대한 비판이란 글의 내용 또는 글에 나오는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의 일반적 기대, 가치, 수용 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작품 속의 인물은 선한가 또는 악한가, 그의 행동은 옳은가 혹은 그른가 하는 것이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³³⁾

한철우 등은 비판적 읽기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³⁴⁾

① 저자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하기

- 누가 말했는가?-정보의 출처 확인.
- 최상의 자료 수집-학생들 스스로 과제에 맞는 각기 다른 최상의 자료 제작.
- 누구의 관점인가?-결론으로 이끌었던 단서를 통한 편견 없는 주제 도출.

②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사실인가, 의견인가?-예를 사용하면서, 표현되는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단서에 대한 토의 유도.
- 최선의 방법 찾아보기-전단이나 광고물의 복사물을 소비자의 시각으로 읽게 함
- 과장된 머릿기사-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친숙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머릿 기사를 만들어 오도록 함.
- 과대 광고 줄이기-사실과 의견의 차이점, 감정적인 언어의 사용과 선전 기법의 이해.

③ 선전 기술 발견하기-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을 때, 독자가 질문해야 하는

- 5Q를 제시
- 필자는 누구냐?

33) 조남현·노명완·최원식, "독서", 한샘출판사, 1996, 57쪽

34) 한철우·천경록, 앞의 책, 226쪽 요약.

- 그것들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나? (누구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 그들은 왜 이 주제를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가?
- 그것들이 호소하는 인간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 그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술인가?)

④ 주관적인 감정의 단어 발견하기

- 진짜 전달 내용 발견하기-감정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발췌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반복
- 누구의 말인가?-학생들은 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를 찾아, 다른 관점의 글을 쓰도록 유도.
- 단어 연상-학생들에게 TV나 영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상투적인 언어를 목록화하도록 시킴.

⑤ 저자의 어조, 목적, 관점 파악하기

- 능동적인 읽기-저자가 논리적인가, 또는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각자가 그 주제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결정함
- 영화보고 비교하기-학생들은 책과 영화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떠오른 주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함

⑥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4. 교수-학습 모형

1) 교수-학습 모형 구안 원리

국어과 교사라면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은 학생이 실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점수를 얻는 학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에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생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사의 수업 방식에서도 그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의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국어과 수업은 대체로 결과 중심의 수업이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암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조건 많은 연습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과정의 학습’에서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학습하므로, 학생 자신이 학습 결손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언어 학습 지도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제목을 주고 무조건 글을 써 보게 한다든지, 글을 읽고 주제와 화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식의 학습 지도는 엄밀히 말해서 교사의 학습 지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쓰기를 가르치려면 쓰기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시범과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어떤 글의 주제를 찾는 과정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 교수법의 학습 지도 방식은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직접 교수법에 대하여 이성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직접 교수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배당하며,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수업을 말한다. 직접 교수는 또한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반복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는 일련의 수업 행위도 포함한다. 직접 교수에서의 교사는 오직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되는 수업 행위만을 하기 위해 수업 목표를 통제하며, 학생 능력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수업의 보조를 맞춘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살 조성하나, 그렇다고 권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호적인 수업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한다.³⁵⁾

박영목 등은 직접 교수법에 따른 수업 진행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다음

35) 이성영, 앞의 책, 210쪽.

과 같이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³⁶⁾

- ① 주의 집중시키기 · 교사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학생들이 학습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② 학습 목표 진술하기 : 학습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시킨다 학생들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채택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 ③ 설명하기 · 주어진 학습 목표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원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은 교사의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교사가 설명하는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단계에서 학습 지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④ 시범 보이기 · 교사는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단순한 예를 통하여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사는, 또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어려움에 봉착하는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이 초인지적 전략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 ⑤ 질문하기 · 설명한 내용이나 시범 보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대하여 세부 단계별로 명시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가 주로 교사 주도의 단계라면, 질문하기 단계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교사는 이전 단계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재인식하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위한 작업을 충실히 이행케 한다 이 때, 이루어지는 교사의 주도면밀한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6) 박영복 · 한철우 · 윤희원 공저,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1999. 93~94쪽

- ⑥ 활동하기 : 문제 사례를 주고 교사가 시범을 보인 책략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해 보게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도하되, 주입식으로 설명하려 들지 말고 힌트를 주거나 안내를 하여 학생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 후에는 학습한 책략들을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반복, 연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⑦ 정리 및 심화 : 교사는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 심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어과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경험적 수업 모형 이론에 입각하여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 다양한 수업 매체가 활용되는 수업, 읽기 관련 국어과 교과와의 통합에 의한 의도적 수업, 학습자의 사고력·창의력·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하는 데 방향을 돌렸다. 교수-학습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인 '무엇을 어떻게 지도한다'에서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현재 국어과 교수-학습의 이론적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교수-학습 모형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수업 모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업을 정당화해 주는 이론 및 근거를 밝히고 그 수업이 어디에 효과적인가를 기술해 주고 있다. 국어과 교육은 언어 교육이다. 언어 교육은 언어의 습득 과정이나 언어 이해 과정의 본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은 또한 기능 교육의 특성을 가진다.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국어과 교육의 한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기능의 학습은 지식의 학습과는 다르다. 언어 기능의 학습은 다른 교과의 기능 학습과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언어 교육 고유의 개별적인 수업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일반 수업 모형이 그 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외면되어 온 이유는 국어과 교사들이 일반 모형의 이해와 활용을 소홀히 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 모형을 국어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모형은 그대로 국어과 교육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체로는 국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국어과 고유의 수업 모형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국어과의 각 영역은 같은 언어 교육이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업 모형을 가진다. 또한 각 영역은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수업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수업 모형의 적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모형 원리를 구안했다.

첫째, 지식 전달 중심,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사고력과 학습 원리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이 되도록 했다. 둘째, 지금까지 학습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 과정 중심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원의 각 단계를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로 나누어 사고력 신장을 시도하였다. 넷째,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서 설명하기→시범 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의 과정 중심 모형 등을 토대로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읽기 관련 국어과 교과서 단원을 분석 통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교과서의 읽기 단원에는 학습 목표가 개괄적으로나마 제시되어 있으나 교사들은 이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명 단원의 학습 목표를 인식한다 해도 학습 목표는 목표대로 지도하고 학습 내용의 전개에서는 단원의 학습 목표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을 주입시키는 형태이다. 따라서 학습 내용의 선정도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정선하여야 한다.

읽기 단원에는 읽을 자료만 제시되어 있고 학습 지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사는 학습 목표, 단원의 길잡이, 글의 성격, 학습 활동 등을 참조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읽기 지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읽기 지도 전략과 수업 모형

읽기에 대한 명확한 본질 규명은 읽기 지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지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여러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읽기를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 제6차 교육 과정의 읽기관은 글의 의미와 독자의 사고 작용의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즉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조작용을 통해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읽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온 읽기관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읽기관의 변화에 따른 읽기의 개념 규정의 변화는 심리학의 시대적 변천 과정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박수자³⁷⁾는 심리학의 읽기관 변천에 대해 '읽기=기능관, 읽기=정보처리관, 읽기=의미구성관'으로 구분하여 읽기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다.

노명완³⁸⁾ 등은 지난 10여 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읽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①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 ② 읽기는 유창하여야 한다.

37) 박수자, 앞의 논문, 21~27쪽 요약.

38) 노명완·박영목·권경안, "국어과 교육론", 서울·감출출판사, 1996. 201~207에서 재인용.

- ③ 읽기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 ④ 읽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 ⑤ 읽기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읽기는 어느 한 측면만을 고수하는 지나치게 배타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된다. 읽기의 개념이 어떤 연구나 이론의 목적에 따라 '해독'이나 '이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나 이론의 목적 또는 범위에 따라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독과 이해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읽기는 해독과 이해, 의미 구성의 개념 등을 함의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읽기의 본질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었고, 읽기 지도는 그러한 읽기 연구 분야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읽기 지도에서는 읽기 연구의 읽기관이 읽기 지도의 교육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읽기 지도는 읽기 연구와 읽기의 교수-학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9)

전통적으로 읽기 지도는 그 하위 기능들을 상정하여 분절적 지도가 이루어져 왔다. 읽기 능력을 세부 하위 기능들로 분석하여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본 기능관(skill-and-drill practice)에는 일정한 위계적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틀 속의 세부 기능들을 획득하면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기능관에서 파악하는 읽기의 기능들을 한철우는 다음과 예시하고 있다. 40)

- ①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② 저자와 의도를 평가하기
- ③ 지시에 따라 읽기

39) 박수자, 앞의 논문, 12쪽

40) 한철우, "독서교육 연구 및 독해지도 방안 탐색", 한국교육연구회, 1988. 3쪽.

- ④ 핵심어휘 찾기
- ⑤ 문단에 대한 제목 붙이기
- ⑥ 주제 문장 찾기
- ⑦ 새로운 아이디어와 있었던 아이디어 짜 맞추기
- ⑧ 새로운 말로 요약하기
- ⑨ 일반화하기
- ⑩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찾기

그는 이런 기능적 접근들이 읽기의 행동, 인지 활동의 어떤 영역들이 독해의 과정을 기술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점, 읽기의 기능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이해되는지(과정)와 이해되었는지(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들어 초기의 기능적 접근⁴¹⁾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맥을 같이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초인지 개념을 도입한 상호작용 모형과 전략 중심 읽기 지도가 제창된다. 전략 중심 읽기 지도는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연계시키도록 하며 읽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케 하고, 읽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책략 지도 또는 방략 지도, 전략 지도 등이라 한다. 읽기 전략에 대한 지도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전략을 선택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 중심 읽기 지도가 최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읽기 지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로 박수자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⁴²⁾

국어과 교육의 읽기 지도에서 관심을 갖는 독해 전략은 글 이해 자

41) 기능적 접근의 교수 모형으로는 상향식 모형을 들 수 있다. 읽기 기능의 위계를 세워 분절된 기능을 지도하는 이러한 시도는 읽기의 과정에 그 기능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2) 박수자, 앞의 논문, 12쪽.

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학습의 상위 수준을 이해라고 보기도 하지만, 국어과 교육의 읽기 지도에서는 그들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글 이해의 증진과 글 학습의 심화는 분명히 다르고, 또 독해 전략과 학습 전략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읽은 후의 심화학습'에 읽기 지도가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기능관에서 전략관으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과 논의에 대해 최영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읽기의 기능과 전략과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기능과 전략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요소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기능'은 능력을 보는 개념으로, 학습자의 실제 행동의 변화를 기술하는 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의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반면에 '전략'은 학습 가능성, 또는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인 것으로, 과정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양자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읽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기능을 세분하여 제시한 자료는 매우 많지만,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다. 전략이 단순히 하위 기능들의 복합이 아니며, 하나의 통합체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각각의 읽기 전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다. 전략이라는 것이 학습자와 글의 상호 작용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전략이 다르다고 해도, 어떤 하나의 읽기 전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같을 것이다 43)

이 연구는 읽기 지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를

43) 최영환, 경인초등학교교육학회편, "과정중심 읽기지도", 인천 : 해영인쇄, 1996. 6~7쪽

통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을 포함한 전략적 접근 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의 읽기 지도가 교사 주도로 이루어져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과 사고를 방해해 왔다는 비판을 감안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적절한 전략을 택하여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학습자 중심의 읽기 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업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태도를 배우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업의 과정에는 교사, 학생, 교과 목표 및 내용이 필수적이며, 이들 요소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수업 모형은 이들 세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교사를 규명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활동적인 교사, 유머 감각이 뛰어난 교사, 사려 깊은 교사 등은 여러 상황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 보았을 때, 결국 교사의 효율성은 교사 개인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수업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업 목표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수업 전략 또한 수업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한 시간의 수업에서도 여러 목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이한 수업 전략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업의 효과는 수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양한 수업 전략을 익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수업 모형은 특수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처방적인 수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처방적이라는 뜻은 수업의 계획, 실천, 평가 단계에서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수업 모형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업 전략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수업 모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건축 기사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건물의 구조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그 구조를 건축하는 데 따라야 할 적절한 설계나 청사진을 설계해야 한다. 이 청사진의 각 부분에 따라 건축가가 해야 할 행위와 건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청사진의 형태는 건축할 건물 구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우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목적에 따라 수업 모형을 선정하게 된다. 수업 모형은 수업의 청사진으로 일련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교사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는 건축가와 비슷하다. 건축가는 궁극적으로 건물의 구조에 책임이 있듯이, 교사는 수업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건물의 청사진이 건축가에게 건물의 구조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듯이, 수업 모형은 교사에게 수업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청사진이라고 해서 건축가의 모든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며, 수업 모형 또한 모든 교사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수업 모형은 수업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수업 모형은 교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수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청사진과 마찬가지로 수업 모형은 수업에 대한 설계도이다. 이 설계도 내에서 교사는 자유롭게 모든 기술, 통찰을 발휘할 수 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활용하기 위해 자기가 사용할 설계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듯이, 교사도 수업 모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 연구에 적용하게 될 사고력 개발을 위한 읽기 전략의 수업 모형들이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고 기능의 위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상향식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읽기 과정이 낱말의 글자로부터 시작하여 단어-구-문장-단락 등으로 확대되어 글 전체의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읽기 과정으로, 언어 기호(글)들을 처리해야 할 일종의 자료로

보는 자료지향적 모형⁴⁴⁾이다. 이 모형은 의미 형성의 과정이, 작은 단위인 언어에서 시작하여 언어 자료를 확인하고 지각하고 의미를 종합하여 점차 큰 단위로 확대하여 간다고 보기 때문에 독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글을 정확하게 해독해야 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읽기를 의미 구성 과정이 아닌 글의 해독 과정으로 보며, 읽기 과정을 세분화하고 위계적으로 유목적화하여 글 내용의 단순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읽기 과정을 여러 작은 정신적 사건의 연쇄 과정으로 보며 이러한 정신적 사건들을 하위 기능이라고 한다. 이 모형에서는 의미 형성이 문자 기호의 풀이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들의 연쇄로 전체 의미가 형성되므로 하위 기능들의 조합으로써 성공적인 읽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형은 의미의 형성이 언어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독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은 수동적이 된다는 점과 특히 정보 처리 단계가 다음 단계의 결과를 모른 채 더 높은 수준의 개념들간의 연결로 이어지므로 정보 처리 단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하향식 모형을 들 수 있다. 상향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 모형은 읽기에서의 의미 형성이 글 자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추측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 모형에서 내용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은 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용에 대한 추측을 많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이다. 스미스(Smith) 등⁴⁵⁾은 읽을 내용을 추측하고 분석하기 위한 읽기 과정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독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문자의 배열을 따라 살핀다.
- 독자는 눈의 초점이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자는 중심부에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주변에 있을 것이다.

44) 박영목·한철우·윤희원, 앞의 책, 250쪽.

45) Smith, Otto, and Hansen, "The School Program", 1978, 28~29쪽.

- 이제 선택 과정이 시작되는데 독자는 문자 단어들을 입수하고 그의 언어 지식, 인지적 양식 그리고 그가 배운 전략들의 이미 선택된 것들을 통해 형성된 제한에 의해 안내된다.
- 독자는 이러한 단서들과 예견된 단서들을 사용하여 지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어떤 것은 그가 본 것이고 어떤 것은 그가 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 이제 독자는 구문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음성학적 단서들과 관련된 그의 기억을 찾는다. 이것들은 더욱 더 사실적인 단서들을 선택하고 지각적인 이미지를 재형성하도록 이끌 것이다
- 이 단계에서 독자는 추측하거나 또는 사실적인 단서와 양립하는 임시적인 선택을 한다. 의미론적 분석은 가능한 한 부분적인 해독을 한다. 의미는 진행 과정 동안 단기 기억(short-memory)장치에 저장된다.
- 만일 추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독자는 회상된 지각적 입력을 점검하여 다시 시도해 본다. 추측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는 더욱 사실적인 단서를 모으기 위해 다른 내용을 주목한다.
- 만일 독자가 해독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앞의 선택과 해독에 의해 개발된 내용 속에서 의미론적이고 문법적인 수용성을 테스트한다.
- 만일 임시적인 선택이 의미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독자는 퇴행해서 행을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목하고 의미론적 또는 통사적으로 불일치한 지점으로 간다. 그러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그 지점을 다시 해독하기 시작한다. 만일 모순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는 변칙적인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 읽는다.
- 만일 선택이 수용 가능하다면, 해독은 확장되고 의미는 앞의 의미와 일치되고 전의 의미는 필요하다면 조정된다. 예상은 앞서 위치한 입력과 의미에 의해 형성된다.
- 순환(cycle)이 계속된다

이렇듯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합리주의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의 모형이기에, 자료보다는 의미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의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행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미와 같은 높은 단계가 어떻게 단어와 같은 낮은 단계의 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높은 단계의 의미 속성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실체를 모르면서도 어떤 대상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셋째, 상호 작용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읽기 과정이 상향식 모형이나 하향식 모형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읽기 과정에서 글의 영향과 독자의 영향, 둘 모두를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읽기는 글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그 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본다.⁴⁶⁾ 결국 이 모형은 일종의 절충 모형으로써 읽기 과정은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가정과 추측, 그리고 언어(글)의 확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즉 독자는 글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지만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도 많은 추리를 행한다는 것이다. 추리는 우선 글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하며 많은 추리와 가설 중에서 가능한 추리를 선택하여 의미 모델을 세우고 지속적인 읽기에서 이 의미 모델에 맞지 않는 것은 검색·수정한다.

이 모형은 스키마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밀하게 발전되어 왔다. 텍스트 분석 이론이 '읽기'의 대상인 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 반면, 스키마 이론은 원칙적으로 읽기의 주체인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즉 스키마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때 독자의 스키마와 잘 맞지 않는 면은 무의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작용 모형에서 언어 이해자의 역할은 하향식에 의해 형성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추측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일 수도 있다.

46) 박영복·한철우·윤희원 공저, 앞의 책, 251쪽.

이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들 중에서 상호 작용 모형을 택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읽기라는 행위는 독자와 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지적 행위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읽기'라고 하려면 독자와 글이 만나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읽기일 것이다. 필자는 텍스트 중심 관점인 상향식 모형과 독자 중심 관점인 하향식 모형의 절충인 상호 작용 모형 읽기 지도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Ⅲ. 교수-학습의 실제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국어(하)’, ‘독서’, ‘문학’ 교과서에서 읽기 관련 영역 구성 체계를 분석한 후, II장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들을 참고로 하여 ‘국어(하)’의 읽기 영역 단원에 적용할 학습 요소를 ‘독서’, ‘문학’ 교과서에서 추출해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과별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분석

1) 국어(하) 교과서

제6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특징은 첫째, 학습자가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찬하였다 셋째, 개념과 방법을 익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편찬되었다.

국어(하)의 짜임새를 보면, 교육 과정의 영역 구분 방법을 바탕으로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되, 읽기 영역 2개 대단원, 문학 영역 2개 대단원, 언어 영역 2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말하기·듣기 영역과 쓰기 영역은 그 영역 자체의 체계를 고려하되, 대단원의 성격과 연계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단원은 다시 몇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차 국어 교과서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① 대단원의 짜임

대단원은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단원의 길잡이, 학습 목표, 준비 학습,

47) 국어 교과서(하) ‘일러두기’ 부분에서 발췌.

학습할 원리, 단원의 마무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㉑ 단원의 길잡이 : 각 대단원 설정의 이유를 밝히고, 각 대단원의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개관하였다. 이는 해당 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지침이 될 것이다.

㉒ 학습 목표 · 교육 과정의 목표로부터 도출한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상세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습 목표는 평가 목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학습 목표와 평가는 유기성을 지닌다

㉓ 준비 학습 . 각 대단원을 공부하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을 이전에 학습한 내용에서 확인하거나 생활 체험에서 환기하도록 하여, 교수-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㉔ 학습할 원리 : 각 대단원에서 그 단원의 성격에 맞는 학습할 원리를 자세히 제시하고 해설하였다. 학습할 원리는 제재를 공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본문의 내용과 제재를 공부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을 제공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㉕ 단원의 마무리 : 대단원 전체를 학습한 다음에는 대단원의 교수-학습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단원의 마무리를 두고, 도움말을 덧붙였다.

② 소단원의 짜임

소단원은 자율 학습 구조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재와 학습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㉑ 학습할 내용 및 제재 . 제재나 내용은 학습할 원리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글을 골라 체계를 잡아 제공하였다. 자율학습을 하면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해설을 곁들였다 제재를 이해한 데 필요한 사항을 제재의 하단에 ‘참고’로 실었다. 제재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와 연관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의 성격을 띤다.

㉒ 학습 활동과 도움말 : 학습 활동은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학습할 내용과 제재를 스스로 공부한 다음, 학생이 발견한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 활동으로 조직하여 제시하였다. 주로 문제 형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율 학습의 기본적 성격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학습 활동을 위한 도움말을 덧붙였다. 학생의 자율 학습과 교사의 보완 설명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다.

㉑ 평가 중점 : 학습 활동 도움말의 끝에 평가 중점을 밝혔다. 이는 학습 목표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을 완결하고 평가하는 데 지침이 될 것이다.

㉒ 참고 자료 : 소단원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 내용의 심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나 내용을 공부하는 데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차 교육 과정 국어 교과서(하)의 주된 특징은, 학생 중심의 자율 학습과 학습할 원리 즉 학습 전략의 터득을 고려한 편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제대로 신장되지 못해 왔고, 또한 그 동안 결과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사고력 저하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게 된 데 따른 대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방향 설정에 의한 교과서 체제는 종래의 국어 수업에서 파생되어 온 여러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 과정 국어 교과서의 주된 목표가 사고력 신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읽기 원리가 무엇을 신장하기 위한 원리인지 목표 의식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중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48)이다.

48)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1995, 73쪽.

1 읽기의 본질	2. 읽기의 원리	3. 읽기의 실제
1) 읽기의 특성 2)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 3) 읽기의 여러 가지 상황	1) 단어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3) 평가 및 감상 of 여러 가지 원리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2) 설득하는 글 읽기 3) 문학적인 글 읽기 4) 효과적인 읽기의 태도 및 습관

위 표에서 보면, 읽기 내용 체계가 읽기의 본질과 원리 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읽기 전략은 학생들에게 흥미 있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론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제 수업 응용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욕이 넘쳐 이론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학습한다면 종래의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 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3. 읽기의 실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고력 신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설정한 '읽기의 실제'의 내용은 글의 종류에 대한 단순한 이해에 그쳐, 읽기의 목표인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글의 종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등학교의 '읽기의 실제'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 중심의 실제 응용 단계이어야 한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 '읽기'의 핵심을 원리(방법) 터득에 두는 만큼 국어 교과서 체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국어(하)의 읽기 영역은 1. 독서와 인생 4. 설명과 설득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하) '1. 독서와 인생 (1) 대화를 통한 이해'에 제시

된 읽기의 원리는 국어(상) '1. 읽기의 본질'에서 제시된 '효과적인 읽기 방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원리이다. '(2) 독서의 방향'에서 제시된 것은 읽기 방법으로 독서 결과의 정리 습관 필요성을 들었다. '4. 설명과 설득'에서 제시된 것은 글의 종류에 대한 읽기 방법으로 (1) 설명하는 글읽기 ① 설명문의 특성 ② 읽는 방법 : 새로운 정보 확인, 사실과 주장의 구분, 관점의 정당성 및 가치에 대한 평가 등에 유의하여 읽음. (2) 설득하는 글읽기 ① 논설문의 특성 ② 읽는 방법 : 논거의 타당성 여부, 논리적 절차 여부. (3) 설명, 설득하는 글을 읽는 태도 ① 추리와 비판 : 사실과 의견 구분하여 필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리, 그 정당성과 가치, 효용성 나아가 비판을 들었다

이상의 국어 교과서 읽기 영역의 학습할 원리를 보면 원리를 지탱하는 뚜렷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산만한 인상을 준다. 읽기 원리간에 연계성마저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전수가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 부분의 연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순서를 재정리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선 국어(상), (하)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면 체계적인 읽기 방법을 총괄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먼저 습득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후 '국어(하) 1. 독서와 인생 (2) 독서의 방향'에서 제시한 읽기 원리가 먼저 나와서 올바른 독서 방향을 유도한 후, 그 다음 순서로 '국어(상) 1. 읽기의 본질'에서 제시된 '효과적인 읽기 방법'이 나와야 한다. 그 뒤로 '국어(상) 9 비판적 이해'가 나와 구체적인 사고력 증진의 독서법을 제시하고, 국어(상)의 '4. 읽기와 어휘 6. 글의 내용과 구조'를 통해 어휘력과 글의 구조 파악이 독서력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킨 후, '국어(하) 4 설명과 설득'이 나와 앞에서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응용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 배열도 '읽기'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 학생들에게 '읽기'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

가 요구하는 '읽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국어 교과서의 원리 중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단원은 '국어(상) 9. 비판적 이해' 뿐이다.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등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력에 대한 응용은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독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읽기 심화 과정의 역할을 독서 교과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 교과서의 체제가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사고력 신장 중심으로 된 읽기의 원리를 이룬 위주가 아닌 실제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독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읽기의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국어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독서 교과서

독서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모두 9종류가 있다. 이들 모두는 교육부에서 설정한 내용 체계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구성 체계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대단원의 짜임과 내용 체계를 중점으로 분석해 보자.

① 대단원의 짜임 : 독서 교과서 대부분이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의 짜임과 유사한 단원의 긴잡이, 학습 목표, 준비 학습, 단원의 마무리를 두고 있다. 다른 점은 국어 교과서에 있는 '학습할 원리'를 따로 대단원으로 편성하여 심화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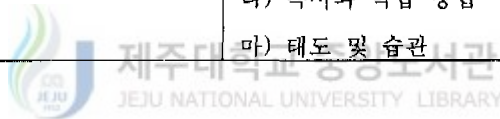
② 내용 체계 : 독서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교육부에서 설정한 원칙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 설정한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독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 체계를 분석해 보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독서 과목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⁴⁹⁾는 다음과 같

4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I)", 1992. 50쪽.

다.

영역	내용
1) 독서의 본질	가) 독서의 기능과 특성 나) 독서의 심리적 과정 다) 독서의 목적과 방법
2) 독서의 원리	가) 단어 이해 기능 나) 독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적 독해 * 추론적 독해 * 비판적 독해 * 감상적 독해
3) 독서의 실제	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나) 설득하는 글 읽기 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읽기 라) 독서와 학습 방법 마) 태도 및 습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위의 내용 체계는 독서 교과가 ‘읽기’의 심화 과정이라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교육부는 분명히 ‘독서’ 과목을 신설하면서, ‘국어’ 과목의 ‘읽기’ 영역에 대한 심화 과정의 필요성, 독서 능력의 신장 및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한 요구 증대에 기인한다는 신설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국어과 ‘읽기’의 내용 체계와 비교해 보면 읽기 원리의 독해 기능을 강조한 면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독해 방법의 습득을 중요시하는 ‘읽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식(이론)적인 면만 보충되었지 ‘읽기’ 심화를 위한 실제 응용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읽기’의 심화 과정으로서 위 표에서 제시된 내용 체계가 불충분한 체계이므로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국어과 내용 체계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바람직한 ‘읽기’의 방향 설정은 사고력 신장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 체계는 지식(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차 교육 과정의 목표에서 제시된 자율 학습과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독서의 원리와 실제간에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 원리를 글의 종류별로 응용시키면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위의 내용 체계를 보면 글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지 읽기 원리의 응용은 부수적으로 밀려나와 있다. 그러므로 확고한 읽기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백과 사전식의 종래의 방법을 답습하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읽기의 목적이 사고력 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읽기의 심화 과정인 독서 교과는 학생들에게 읽기의 전략을 통합적인 독서 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으로 익히는 장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 체계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3. 독서의 실제’이다. 지식 및 이론 분야인 독서의 본질과 원리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독서 교과는 다양한 통합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중심의 토의,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많은 책을 읽도록 하는 진정한 ‘읽기의 실제’가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독서 교과서들은 위에서 설정한 교과 과정의 내용 체계인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 독서의 실제 단계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 다만 그 전개 방식이나 비중이 다를 뿐이다. 가장 많은 구성 체계는 독서의 본질을 1-2개 정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독서의 원리는 각 독서의 기능을 하나의 대단원으로 삼아 그 대단원마다 소단원을 2개 정도 두어, 소단원을 각각의 원리에 대한 예문으로 활용하는 편성을 하였다. 독서의 실제는 위에서 설정한 5개의 글 종류별로 대단원을 두고, 그 예문으로 소단원을 2개 정도 들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읽기’의 심화 과정으로는 미흡하

다. 각각의 독서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 2개 정도의 소단원을 두어 응용했지만, 이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국어 교과 시간에 다루어져야 한다. 독서 교과 시간에 다루는 독서의 원리는, 독서의 본질과 더불어 국어 교과 시간에 한 것을 정리 삼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된다. 이론 위주의 지식을 자세히 언급하다 보면 독서 교과가 강의 수업 위주로 흐름 위험이 있어, 읽기 심화 과정으로의 통합 독서와는 동떨어진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 독서 교과서들은 그 내용 체계를 크게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 독서의 실제의 크게 셋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세 영역 중에서도 대부분 독서의 원리에 내용 체계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 설정은 독서의 원리를 읽기의 주된 목표로 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중 설정은 읽기의 심화 과정으로서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읽기 심화 과정은 말 그대로 실제 독서의 원리를 응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읽기의 원리를 더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터득하는데 있지 않다.



3) 문학 교과서

고등학교 '문학'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작품 감상의 원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상상력을 계발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가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학' 과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의 '문학'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을 심화, 확충시킨 과목이다.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강조점은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의 지속적 심화 과정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고양하고 삶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문학에 관한 체계적 지식과 감상의 원리에 대한 학습이 문학 작품의 실제 감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문학 과목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과 기능	가) 문학의 성격 나) 문학의 갈래 다) 문학의 수용과 가치
2)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가)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 나) 문학 작품 구성 요소들의 기능 및 관계 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과 삶의 양상 라) 문학 작품의 현실 상황 마) 문학 작품의 미적 구조 바) 문학 작품의 내면화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가) 한국 문학의 흐름과 성격 나) 세계 문학의 양상 다)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위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문학의 본질과 기능’,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문학의 본질과 기능’은 문학에 관한 일반 이론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며, 이는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을 위한 바탕이 된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과 원리를 습득하여, 실제의 개별 문학 작품들을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읽어 내고, 작품의 특질과 지향을 의미 있게 향수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에 교수-학습의 중점을 둔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은 한국 문학의 특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학의 이해에까지 나아가 문학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교수-학습의 중심을 둔다.

고등학교 ‘문학’ 과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해 가고, 올바른 민족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할 문학 작품들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과 문화’ 단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학 교과서에 빈번히 나오는 작품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시,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에 한정해서 추출하였다.

이상으로 교과별 읽기 영역의 구성 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단원별 읽기 영역의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다음에 이어질 교수-학습 활동 과정안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과 사고력 신장 방안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해 보았다.

다만, 국어 교과서(하)의 읽기 영역 외에 ‘문학과 문화’의 단원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3개의 대단원에서 각각 1단원을 선택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2. 단원별 읽기 영역의 학습 요소 적용

II-4-(2)에서 수업의 효과는 교사의 다양한 수업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필자는 다양한 읽기 자료 제시가 사고력 신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국어(하)’의 각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문학’, ‘독서’ 교과서의 작품에서 임의대로 추출하여 제시하고, 대단원별로 한 단원을 선정하여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에 제시하고자 한다.

<대단원 1. 독서와 인생>

(1) 나의 길, 나의 삶

- ① '문학'의 적용 : · 시-'진달래꽃', '님의 침묵', '설정', '참회록', '그 날이 오면', '눈', '농무' 등.
· 소설-'메밀꽃 필 무렵', '학', '광장', '역마', '유예', '수난 이대', '꺼삐딴 리' 등
- ② '독서'의 적용 · '면학의 서', '길', '독서의 단상', '체찰사에게 드리는 글' 등

(2) 소설은 왜 읽는가

- ① '문학'의 적용 · 시-'껌대기는 가라', '거울', '유리창1' 등
· 소설-'사랑 손님과 어머니', '운수 좋은 날', '두 파산' '태평천하', '역마', '무녀도' 등
- ② '독서'의 적용 · '새', '삶과 가치 지향성', '제1과 제1장' 등

(3) 기미 독립 선언서

- ① '문학'의 적용 : · 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 등
· 소설 : '만세전', '서울, 1964년 겨울' 등
- ② '독서'의 적용 : '육중 수기',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역사와 모국어' 등

<대단원 4. 설명과 설득>

(1)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 ① '문학'의 적용 : · 시-'국경의 밤', '성북동 비둘기', '적군 묘지', '추천사' 등

· 소설-‘만세전’, ‘탁류’, ‘광장’, ‘무녀도’, ‘모래톱 이야기’ 등

② ‘독서’의 적용 : 변동

① ‘문학’의 적용 · 시-‘풀’, ‘해에게서 소년에게’, ‘추억에서’, ‘목계장터’ 등

· 소설-‘한국 고미술의 세계’, ‘별은 죽어 별을 남긴다’, ‘명사십리’, ‘전통 놀이 마당’ 등

(2) 사회 변동과 문화 설-‘운수좋은 날’, ‘무녀도’, ‘서울, 1964년 겨울’ 등

② ‘독서’의 적용 :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해외 동포의 모국어 교육’,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세계화와 우리의 자세’ 등

(3) 매현에게 주는 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 ‘문학’의 적용 · 시-‘폭포’, ‘광야’, ‘목마와 숙녀’, ‘생명의 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

· 소설-‘메밀꽃 필 무렵’, ‘학’, ‘광장’, ‘두 파산’, ‘별’, ‘등백꽃’ 등

② ‘독서’의 적용 ‘길, 상터, 강’, ‘역사와 모국어’, ‘인권 운동으로서의 여성 운동’ 등

<대단원 6. 문학과 문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주제, 배경, 사건 등이 유사한 작품과 연계하여 지도함이 바람직함.

3. 교수-학습 활동 과정안

1-(1) 나의 길, 나의 삶

1. 학습 목표

- 가. 글의 내용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줄 안다.
- 나. 추리, 상상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 라. 글의 내용을 통하여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어낸다
- 마. 글을 읽고,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

2. 교수-학습의 방향

이 글은 참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학, 철학 등을 넘나들며 한평생 인문 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와 사색을 계속하여 온 학자로서의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역정(歷程)을 회고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자전적, 인생론적 수필이다.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통하여,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 답해 보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원에서는 가능한한 어휘, 어구 해석, 문장 기교, 표현 기교 등에 집착하는 일은 삼가야겠다

3. 교수-학습 활동

본문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 활동-글의 요약, 주제문, 단락별 중심 문장 파악 등-은 전시 수업에서 과제를 주어 본시 학습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본시 학습은 자율적인 발표를 통하여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게 한다. 그런 다음, 본문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의 과제를 모둠별로 나누어주고, 각 모둠별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 활동 도움말]을 보완하여 주면서, 학생의 [학습 활동] 풀이를 돕는

범위 내에서 교수한다

모듬 활동이 끝난 후 모듬별 발표를 통하여 총괄 학습의 효과를 꾀한다.

가. 1/2 차시

1) 글 요약하기 → 과제 확인 : 3~4 명 정도를 자율 발표하게 한다.

<글의 요약>-논리적 사고력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면서 각기 고귀하고 우아해 보이는 종달새와 방울새, 그리고 정이 두터운 개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나는 서울에 와서 문학에 눈을 떠 시인, 작가가 되기도 싶었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 투명하게 되고 싶다는 지적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에 나서서 마흔이 가깝도록 세계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다. 그런 배움의 길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지적 깊이와 그런 삶에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아직 내가 아는 것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하여 사색하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러다가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있으면 또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2) 주제문 만들기 → 요약문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찾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자율 발표하게 하고 발표 내용을 판서하여 준다

<주제문>-논리적 사고력

나는 배움의 길을 택해 일관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3) 단락별 중심문 파악 → 과제 확인 : 3~4 명 정도를 지명 발표하게 한다.

<단락별 중심 문장>-논리적 사고력

1단락 : 어려서 나는 종달새와 방울새를 좋아했다.

2단락 : 나는 개도 무척 좋아했다.

3단락 : 문학에 눈을 뜬 후,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4단락 : 지적 갈등으로 나는 배움의 길을 나서기로 했다.

5단락 : 한평생 앞의 길을 찾아 일관된 삶을 살았다.

6단락 : 배움의 길에서 위대한 사상과 지적 깊이를 지닌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7단락 : 아직도 아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 더욱 배우고 생각하고 알고 싶다.

8단락 : 내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이게 다 뭐가?”,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가?”에 대한 답이다

9단락 : 내가 알게 된 것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10단락 : 나의 지적 추구의 결과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11단락 : 갈 길은 더욱 아득해 보여 아쉽고 초조하다.

12단락 : 더 자유롭게, 더 조용히, 또 생각하고 또 쓰고 싶다.



나. 2/2 차시

▶ 학습 활동 풀이 . 7~8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 풀이, 정리, 발표하게 한다.

※ 모둠별 과제 및 풀이

<모둠 1>

(물음)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날의 특징은 어떻다고 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력)

<모둠 2>

(물음) 글쓴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5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논리적 사고력)

<모듬 3>

(물음) 글쓴이의 성격과 나의 성격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모듬 4>

(물음) 이 글을 통해 '사람'에 대하여 새로이 알게 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력)

<모듬 5>

(물음) 이 글을 통해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 (창의적 사고력)

<공통>

(물음) 글쓴이의 삶에 대해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물음) 이 글을 읽고 나서 가지게 된 자신의 결심을 200자 이내로 적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4.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

전(全) 차시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 살펴서 메모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과제를,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가 보충 학습

물음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글의 대강과 중심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게 하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읽기를 통해 독서 내용에 대한 맹목적 수용 자세를 경계한다

<과제 1> 어릴 적 새를 좋아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의도는 무엇일까? (비판적 사고력)

<과제 2> 글쓴이의 열정적인 성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쓰시오. (논리적 사고력)

<과제 3> “50년의 긴 배움의 도상에서 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고, 적지 않은 것들과 접했다”에서의 ‘만남과 접함’은 어떤 방식의 만남과 접함이었나? (논리적 사고력)

<과제 4> 글쓴이의 겸손한 자세와 진리 탐구의 길이 아득함을 이야기한 단락을 찾아 왜 그러한지를 쓰시오. (논리적 사고력)

<과제 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어찌하려 하는가? (논리적 사고력)

<과제 6> 열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이 글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나. 심화 학습 과제



[길-박이문]을 통해 ‘길’ 과 ‘만남’ 과 ‘인생’ 과 ‘독서’ 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독서의 단상-이기문]을 통하여 ‘독서의 의의’ 의 다양함을 알게 하여 삶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한다.

<과제 1> 다음은 [길 - 박이문]의 한 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은 부름이다. 길이란 언어는 부름을 뜻한다. 언덕 너머 마을이 산길로 나를 부른다. 가로수로 그늘진 신자료가 도시로 나를 부른다. 기적(汽笛) 소리가 저녁 하늘을 흔드는 나루터에서, 혹은 시골 역에서 나는 이국(異國)의 부름을 듣는다. 그래서 길의 부름은 희망이기도 하며, 기다림이기도 하다

눈앞에 곧장 뻗은 고속 도로가 산을 끊고 들을 지나 아득한 지평선으로 넘어간다 푸른 산 골짜기로 꼬불꼬불 도는 하얀 길이 내 발 밑에 깔려 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내 발에 활기를 주는 손짓이다 나는 그 희망을 찾아 그 손짓을 따라 앞으로 가야겠다는

즐거운 유혹에 빠진다

길은 우리의 삶을 부풀게 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부름을 따라가는 나의 발길이 생명력으로 가벼워진다 황혼에 몰들어 가는 한 마을의 논길, 버스가 오가며 먼지를 띄우고 지나가는 신작로, 산언덕을 넘어 내려오는 오솔길은 경우에 따라 기다림을 이 야기한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친정을 찾아오는 딸을,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를 기다림에 부풀게 하는 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길은 희망을 따라 떠나라고 부르고, 그리움을 간직한 채 돌아오라고 말한다

희망과 그리움, 떠남과 돌아옴의 길은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길은 희망이라는 미래와 그리움이라는 과거, 미지(未知)의 사람과 정든 사람들, 사물과 인간간의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관계에서 미래와 과거, 나와 남, 정착과 개척, 휴식과 움직임,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의 열매가 결실되어 간다.

길은 과거에 고착(固着)함을 부정하는 동시에, 미래에만 들떠 있음을 경고한다. 길을 떠나는 이웃과 만나고, 길을 따라온 이웃이 나를 만난다. 길 끝에 휴식할 곳이 있지만, 다시 길을 찾아 어디론가 움직여야 한다. 길은 인간이 자연 현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선을 전달하는 크나큰 표지이지만, 그 표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나타낸다

이러한 만남에서 과거가 미래로 이어져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남들에게 연결되어, 고독한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는 사회라는 광장에서 인간으로서 재발견된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 더 나아가 우주로 해방된다 이리하여, 길이 만남이라면 만남은 꿈 열림이다

인간을 자연과 우주로, 나를 남과 사회로 열어 주는 길들은 자연과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뜻있는 것으로 하며, 나와 남과의 사이에 사회의 질서를 세워 진정한 뜻에서의 인간적 세계를 창조한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물로서 존재가 빛을 받아 원래의 은폐성(隱蔽性)에서 밖으로 뜻을 가지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동물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서 승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길은 벨트(Welt), 즉 물리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움벨트(Umwelt), 즉 환경으로서의 세계로, 환경으로서의 세계가 레벤스벨트(Lebenswelt) 즉 생활 세계로, 무의미의 세계가 의미의 세계로 발전하는 역사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기록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삶의 발자국이다.

- ① 윗글에서 ‘길’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쓰인 단어를 모두 찾으시오 (논리적 사고력)

- ② ‘길은 부름이다’, ‘길은 그리움이다’, ‘길은 만남이다, 그러므로 열림이다’를 자신

의 말로 풀어서 말해 보시오 <이해된 대로 말하기> (창의적 사고력)

<과제 2> 다음은 [독서의 단상 - 이기문]의 한 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삼매(讀書三昧)라는 말만 들었지, 그런 경지에 내가 들어 본 일이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고, 만권서(萬券書)를 깨뜨리고 박람강기(博覽強記)를 능사로 하기에는 원체 바탕이 얇고 재주가 미치지 못한다 내게도 한때 문학서를 탐독한 소년시절이 있었지만 꿈만 같고, 지금은 다만 필요에 쫓겨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내 독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일 것이다. 다급하여 책을 들면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만 뜯어 읽게 마련이다. 책은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끝장까지 통독하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가장 소중한 교훈의 하나였고, 한동안 이것을 지키느라 애도 썼건만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럴 여유가 없다. 시간은 내면 없지도 않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탈이다.

역시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이 근래 나는 신간 전공서를 통독, 정독하고 오랜만에 흐릿한 느낌에 젖어 본 일이 있다. 최근의 언어 이론에 대한 내 이해도 새로웠지만, 이를 계기로 독서하는 태도가 새로워진 듯하여 더욱 기뻐다.

나는 필요에 쫓긴 독서를 폄(貶)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여유 있는 자발적인 독서만이 삼매경(三昧境)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필요성은 성실한 독서를 가져올 것이요, 성실은 맑은 적건 삼매의 경지로 이끌어 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서의 진미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독서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 내킬 때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여유, 정신적, 경제적인 이유가 내게는 무척 아쉽다. 지금의 나에게 이런 귀족적인 아취(雅趣)가 허락될 리 없다 그러나 이런 아취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내 생활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년에 두어 번쯤 으레 앓는 몸살로 자리에 누웠을 때, 이 때가 내 생활에서 가장 사치스런 시간이다. 나는 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 소설이나 수필집을 다시 펴 볼 수 있는 것이나 읽은 기억이 있는 글을 다시 읽는 것처럼 마음에 부담 없이 그 내용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얼마 전 사다 두었던 신간 시집을 읽는 것도 이 때다 대개는 실망하지만, 마음에 드는 한두 가편(佳篇)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①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독서에 대한 생각과 의의, 그리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나타난 글쓴이의 독서에 대한 생각과 의의를 비교하시오. (비판적 사고력)

<과제 3> 다음은 [체찰사에게 드리는 글-이순신]의 일부분이다 글에 나타난 필자의 삶의 태도와 '나의 길, 나의 삶'에 나타난 필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시오. (비판적 사고력)

이제 또 자친께서 연세 여든을 넘기시어 해가 서산에 닿은 듯하온 바, 이리다가 만일 또 하루 아침에 다시는 모실 길 없는 슬픔을 만나는 날이 오면, 이는 제가 또 한 번 불효한 자식이 될뿐더러, 자친께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시리이다. 적이 생각하건대, 왜적들이 화친을 청함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며, 또 명나라 사신들이 내려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적들은 아직껏 불러가는 形迹(형적)이 없으니, 앞날에 닥쳐올 禍端(화단)이 옹당 전일보다 심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에 자친을 가 뵈옵지 못하면, 봄이 되어 방비하기에 바쁘게 되고서는 도저히 진을 떠나기가 어려울 것이온즉, 闕下(각하)는 이 애뜻한 정곡을 살피시어 몇 날의 말미를 주시면, 배를 타고 한 번 가 뵈옵으로 늙으신 어머님 마음이 적이 위로될 수 있으리이다.

그리고 혹시 그 사이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어찌 허락을 받았다 하여 감히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야 하오리까?

<과제 4> 시 '님의 침묵', '절정', '참회록', '그 날이 오면', '농무'를 읽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과제 5> 소설 '메밀꽃 필 무렵', '학', '역마', '유예', '수난 이대', '꺼삐딴 리'에 제시된 주인공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 근거를 들어 작품별로 정리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과제 6> 위의 <과제 5>에서 제시된 작품 중 하나를 골라 여러분이 예측하는 결말을 이어 써 보시오 (창의적 사고력)

4-(2)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

1. 학습 목표

- 가.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나.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서술 방법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 다.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전제를 추리, 상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 라. 글의 내용을 외적 준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마.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교수·학습의 방향

이 글은 대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 파악과 함께 설득의 과정에 대한 진지한 독해가 요구된다.

이 단원의 학습을 위해서는 글의 구조에 따른 내용의 이해가 사전 개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야만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독해를 당부하고 독해를 할 때 과제 학습지를 활용하면서 독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완성시켜, 교수-학습 시간에는 과제 학습지 정리와 같이 글의 내용을 확인·정리 한 다음, 학습 목표의 순서대로 교수-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국어 사전이나 사회학 사전, 기타 참고 도서를 이용하여 어휘 및 용어에 대한 사전 학습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과제 학습지

단원 '4-(2)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의 내용을 충분히 독해한 후 글의 내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보자. (논리적 사고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1)문단 . <1 서론>

가 의문 제기(문제점 제시)

- 1)
- 2)
- 3)

나. 글쓴이의 주장

- 1)

다 주장의 근거(이유 제시)

- 1)
- 2)

3)

4)

2. (2)문단 : <2 근대화와 문화 변동>

가.

나.

다 근대화로 인한 문화 변동의 과정

() → () → () → () → ()

3 (3)문단 . <3. 문화적 전통의 확립>

가

나

4. (4)문단 <4 결론>

가

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교수·학습 활동

가 1/2 자시

1) 과제 학습기 정리

‘4-(2)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의 글의 짜임 및 내용 정리 (논리적 사고력)

1. (1)문단 : <1 서론>

가 의문 제기(문제점 제시)

1) 전통 문화의 유지·변화의 문제

2) 전통 문화의 연속성과 재창조의 문제

3)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의 과정에서 외래 문화의 토착화, 한국화가 갖는 의미 문제

나. 글쓴이의 주장

- 1) 전통 문화의 유지·변화의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다. 주장의 근거(이유 제시)

- 1)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이미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광범하고 심대한 사회 구조적 변동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유지·변화의 문제는 단순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2) 근대화는 전통 문화의 연속성과 변화를 다 같이 필요로 하며 외래 문화의 수용과 그 토착화 등을 다 같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유지·변화 문제는 단순히 외래 문화이나 전통 문화이냐의 양자 택일적 문제가 될 수 없다
- 3) 전통의 계승과 외래 문화의 선별 수용 문제도 단순히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기준에서만 다룰 수 없다
- 4) 따라서,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문단 . <2. 근대화와 문화 변동>

가 전통 사회의 구조적 특징

나 : 근대화로 인한 전통 사회의 해체 과정

다 . 근대화로 인한 문화 변동의 과정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 (전통 문화의 해체) → (외래 문화의 차용) → (혼합 문화) → (문화적 전통의 확립)

3 (3)문단 · <3 문화적 전통의 확립>

가 · 문화적 전통의 정의와 개념

나 . 문화적 전통의 확립 조건, 문화적 전통의 확립을 위한 노력

4. (4)문단 : <4. 결론>

가 : <2 근대화와 문화 변동>의 내용 요약

나 : <3. 문화적 전통의 확립>의 내용 요약

나. 2/2 차시

1) 이 글의 목적을 알아보고 특징을 정리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2)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서술 방법의 관계 (논리적 사고력)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서술 방법의 관계는 글쓴이가 구분해 놓은 <1 서론>, <2 근대화와 문화 변동>, <3.문화적 전통의 확립>, <4.결론>의 내용 단위와 전개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3)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전제를 추리, 상상하고 평가하기 (창의적 사고력)

문단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전제를 추리, 상상하고 평가해 보시오.

4) 외적 증거에 따른 글의 내용 평가 (비판적 사고력)

외적 증거 중 신뢰성에 대하여는 <1. 서론> 부분을, 효용성에 대해서는 <2. 근대화와 문화 변동> 부분을, 공정성에 대해서는 <3. 문화적 전통의 확립>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 보도록 하시오.

5)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합리성 판단하기 (비판적 사고력)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합리성은 <1. 서론>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오

4.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

가. 보충 학습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 불변(固定 不變)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所産)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後代)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들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화는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화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1) 정보와 서술 방법의 관계 알아보기 (논리적 사고력)

가)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50자 이내로 정리하시오.

나)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지 삼단논법으로 정리하시오

2) 글의 목적과 관련한 특징 말해보기 (논리적 사고력)

가) 전통과 인습의 의미를 정리하고 생활 주변에서 그 예를 찾아 기술하시오.

나) 이 글에 나타난 사실과 의견(주장)을 나누어 정리하시오

다) 우리 학교의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3)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합리성 비판하기 (비판적 사고력)

가) 이 글에서 전통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인습과의 차이점을 지적해 보인 대조의 서술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 여부의 논거를 제시하시오.

나) 이 글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쓰시오.

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논거는 합리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나. 심화 학습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歷史家)가 역사를 만들어 내고, 현재가 과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투사하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역사는 현재의 목적에 적합한 과거의 주제를 뽑아 내는 보물 주머니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희망을 과거에 투사하려 들며 앞으로 창조하려는 것을 지난날에서 발견하려 할 때 우리는 이를 '역사의 재창조'라 부른다. 역사의 재창조는 대개 과거의 사실을 재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거니와 우리는 이를 통해 발생한 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크게 진전시킨 사례(史例)를 많이 본다.

이 역사의 재창조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전통의 문제이다. 이를 역사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통과 전통주의와의 구별이다. 전통은 과거에서 내려온 신념과 관행(慣行)을 말하므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데 따라 변한다고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신념과 관행을 불변(不變)의 것으로 찬양하는 이도 없지 않다. 후자의 견해를 전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전통주의자는 전통을 정적(靜的)인 것으로 보며 인간이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19세기 중국과 명치 시대의 일본과의 차이를 본다. 일본인들은 근대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적합하도록 자기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려고 애썼는데 대하여 많은 중국인들은 그러한 혁신에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전통주의는 근대화의 진전에 분명히 방해가 되나,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수정되는 전통은 그와 같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맥

정화증에 걸린 사회가 아니라면, 어떤 고정 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의 문제는 역사의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1) 정보와 서술 방법의 관계 알아보기 (논리적 사고력)

가) 이 글을 하나의 주제문으로 만들어 보시오

나)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지 삼단 논법으로 제시하시오.

2) 글의 목적과 관련한 특징을 말해보기 (논리적 사고력)

가) 이 글의 집필 목적은 무엇인가?

나) 이 글의 셋째 단락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시오.

3)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합리성 비판하기 (비판적 사고력)

가) 이 글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나)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논거는 합리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찾아 10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과제 1> 다음은 [세계화와 우리의 자세-차경수]의 일부분이다. 필자가 주장하려는 바를 유추하여 성리하시오. (논리적 사고력)

국제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관계를 맺는 일이 어떤 한 나라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밖의 다른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나 행동이 우리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규범에만 따르던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규범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우리의 규범이 외국인

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적응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개방화는 문자 그대로 폐쇄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외국과 상호 관계를 맺지 않거나 고립되어
 살아 오다가 외국과 상호 관계를 맺도록 된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외
 국 상품의 수입이나 서비스가 들어오던 것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방화가 되면 우선 외국의 문화가 몰밀 듯이 흘러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감각적인 외국의 저질 문화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외국의 폭력 비디오가 우리 청소년들
 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그러한 예이다 또, 제한적으로 수입되던 외국
 의 상품이 제한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민들의 보건이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과제 2> 소설 ‘만세전’, ‘탁류’, ‘광장’, ‘무녀도’, ‘모래톱 이야기’에 나타난
 시대상을 정리하시오 (논리적·창의적·비판적 사고력)

<과제 3> 시 ‘국경의 밤’, ‘성북동 비둘기’, ‘적군 묘지’, ‘추천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각각 정리하시오. (논리적 사고력)

<과제 4> 소설 ‘광장’을 읽고 당시 시대 상황과 지식인들의 의식 구조를 유추하여
 정리하고, 자신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해 보시
 오 (창의적 사고력)

6-(2) 논개(論介)의 애인(愛人)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

1. 학습 목표

- 가. 역설적 표현의 묘미를 이해한다.
- 나 이 작품에 나타난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
- 다. 논개와 한용운의 조국애를 이해한다.

2. 교수·학습의 방향

이 시는 임진란 때 진주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논개의 넋을 기리는 시이
 다. 시적 자아는 논개의 애인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를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 역설로써 표현한 이 시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논개를 통해 부끄러운 역사의 의미를 새기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 학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비유와 역설들이 많은 시이므로 먼저 각각의 구절과 비유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 다음 전체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제들을 활용하고 2차시에 전체적인 정리와 감상을 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각자의 생각을 모으고, 모듬의 대표자가 발표하도록 하며 교사는 발표 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주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논개와 한용운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고 학습한다. 논개의 묘와 축석루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감상해 보도록 한다. 국어사전, 한자사전, 참고서적을 활용한다

가. 1/2 차시

(학생 활동 1) 이 시를 운율에 따라 읽어보자.

[한두 명 정도를 읽히도록 한다.]

(학생 활동 2) 교과서 343쪽에 있는 ‘어우야담’에 기록된 논개의 생애를 읽어보자

[한 명을 지정하여 읽힌 다음 교사가 보충 설명 또는 관계된 이야기들을 준비하여 들려준다.]

(볼음 1) 다음 구절들의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시오 (창의적 사고력)

1) ‘날과 밤으로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2) ‘바람과 비에 우누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같은 광음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3)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4) '황금의 칼에 베어진 꽃, 썩은 칼'

5)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 나라의 꽃수풀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6) '봄은 듯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하다가 희어지며 가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朝雲이나 울음의 暮雨이나 새벽달의 비밀이나 이슬꽃의 상징이나.'

7) '빠비 같은 그대의 손에 쥐이우지 못한 낙화대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하여 얼굴이 붉었다.'

8) '강 언덕의 묵은 이끼는 교궁에 넘쳐서 푸른 사룡으로 자기의 체명을 가리었다.'

나 2/2 차시

9)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10)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에 제종을 올린대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11)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물음 2) '조선의 무덤' 과 같은 의미로 된 부분을 찾아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3) 이 시의 시상 전개와 구조를 정리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4) 이 시를 서사 구조로 풀어 정리하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5) 주어진 논개의 부딪 전경을 본 다음 눈을 감고 3분 정도 명상에 젖어본 다음 이 글의 주제를 학습지에 적어보시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학 습 지>

()반 ()번 이름()

자신의 생각을 적는 란

모둠별 토론 후의 보충란

4.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

가 보충 학습 (50분)

보충 학습은 역설적 표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기본적인 어조, 성격, 시어의 의미 등을 학습한다.

(물음 1) 역설적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며, 다른 시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이 시에 쓰인 역설적인 표현들을 찾아보시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물음 2) 이 시의 어조와 성격을 말해 보고 이와 비슷한 시를 찾아 정리하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3) ‘가시’에 담긴 의미를 말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4) ‘칼에 베어진’의 의미를 말해 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5) 시적 자아는 어떠한 심정으로 ‘용서하여요’라고 하였을까 말해 보시오. (창의적 사고력)

나. 심화 학습 (50분)

심화 학습에서는 시 속에 표현된 시적 자아의 심정과 속 깊은 의미 등을 파악하

고, 정신적인 이미지, 선인들의 조국애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물음 1) 시적 자아의 서로 다른 두 심정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물음 2) 시적 자아는 논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토론해 보시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물음 3) 논개의 애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시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물음 4) ‘찬바람’의 숨은 뜻을 알아보시오 (논리적 사고력)

(물음 5) 변영로의 ‘논개’라는 시를 비교하여 감상해 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시오 (비판적 사고력).

<과제 1> 만해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화자의 자세와 본 단원에 나타난 삶의 자세를 통해 만해의 정신 세계를 정리하시오 (창의적 사고력)

<과제 2> 황순원의 소설 ‘별’의 주인공과 본 단원의 화자를 비교하여 추모의 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시오

<과제 3> 1920년대의 민족시들을 찾아서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발표하시오. (창의적 사고력)

<과제 4> 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홍부전’의 놀부, ‘논개’의 성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상호 비교하시오.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IV. 결론

현대 사회가 다양한 사고력이 요구되는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가 도구 교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국어 교과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읽기'의 지도 방법이 교사 주도의 강의식·주입식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의 교수-학습 수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해가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읽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쓰기·말하기·듣기 등 국어의 영역도 국어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 현장의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을 국어과 '읽기'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모형 원리를 구안하였다. 첫째, 지식 전달 중심,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사고력과 학습 원리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이 되도록 했다. 둘째, 지금까지 학습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 과정 중심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원의 각 단계를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로 나누어 사고력 신장을 시도하였다. 넷째,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서 '설명하기→시범 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의 과정 중심 모형 등을 토대로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읽기 관련 국어과 교과서를 분석 통합하여 그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독서',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어(하)'의 단원과 관련시키기 위하여 읽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고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고력 신장을 위한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함으로써 현장 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는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제7차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①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③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에는 실제 수업 모형이 제시된 바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어느 한 장르의 부분 수업 모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연구가 사고력 신장 교육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쉬운 점은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린 수업', '수준별 이동 수업'을 받는 세대들이고 보니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심화, 보통)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교사는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논문>

- 박수자,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 박종호, “창의적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신광호, “읽기 학습 지도의 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고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숙안, “비판적 읽기 책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임경일,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명진,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대원,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향입,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저서>

- Smith, Otto, and Hansen, “The School Program”, 1978.
- 김영채, 박권생,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 전략”, 교육과학사, 1992.
- 노명완·박영목·권경안, “국어과 교육론”, 서울 : 감을출판사, 1996.
- 박성익·권낙원, “수업 모형의 적용기술”, 성연사, 1989.

박영목, “독서”, 교학사, 1996.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공저,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1999.

이성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조남현·노명완·최원식, “독서”, 한샘출판사, 1996.

한철우·천경록, “열린 교육, 토론 학습을 위한 독서지도방법”, 교학사,
1997

<자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199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Ⅰ)”, 1992.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1995.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Ⅰ” 서울:대한교과서(주), 1992.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Ⅰ” 서울:대한교과서(주), 1992.

교육부, “과학 영재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1994.

노명완, “교과 교육과 사고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1.

노명완, “국어과 교육과 사고력 신장”, 충청남도교육청, 1994

안성수,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
총, 1999.

제주도교육청, “독서 지도 이렇게 합시다”, 1999.

최영환,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편, “과정중심 읽기지도”, 인천 : 해영인쇄,
1996.

충청남도 교육청 편저,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서울:대한교과서
(주), 1994

한철우(1988), “독서교육 연구 및 독해 지도 방안 탐색”, 한국교육연구회.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국어(상), (하)」

구인환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한샘출판사(주).

김봉균 외 1인(1995),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김봉균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지학사.
 김열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
 김용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대일도서.
 김윤식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한샘출판사(주)
 김은전 외 3인(1995), 「고등학교 독서」, 대한교과서.
 김태준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민문고.
 남미영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서적(주).
 박갑수 외 1인(1995),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박경신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금성교과서(주)
 박영목(1995), 「고등학교 독서」, 교학사.
 오세영 외 1인(1995),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오세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천재교육(주).
 우한용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
 윤홍로 외 1인(1995), 「고등학교 독서」, 탐구원.
 이광호 외 2인(1995), 「고등학교 독서」, 재능교육. LIBRARY
 이문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선영사.
 조남현 외 2인(1995), 「고등학교 독서」, 한샘출판사(주).
 한계전 외 2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대한교과서.

<Abstract>

A study on teaching-learning method in reading for enhancement of thinking power

Hyun, Yong-sik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e subject penetrating the core in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education which is effective from year 2002 is to convert the educational method from 'instructor-centered teaching method' to 'student-centered teaching-learning method'. Consequently, the study of teaching method which inspires the student to learn for themselves, which can be called 'self-leaded learning', is keenly needed. This study shows how to enhance thinking power and the quality in Korean Education, providing various strategic models to learners for eas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they read. Furthermore,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definit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enhancement of thinking power with the purpose of encouraging you in putting this model to practical use in your class. Particularly, regarding the character of each chapter, this study gives a practical method to real teaching plan that promotes logical,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power.

Accordingly,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thesis, I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reading education by Korean teachers in High School and made a statement about its betterment, after then I framed the teaching-learning method model for enhancement of thinking power. With this process, I could provide the improved strategy how to instruct the reading and lead the lecture focusing on logical,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power.

The teaching method model for enhancement of logical thinking power includes concept acquirement model, pursuit through

discussion model, and practice of descriptive thinking model. These models are exhibited here with each teaching strategy.

In the part of enhancement of creative thinking power, I presented the principle of creative reading. And the way how to apply the principle to real reading is also stated.

Regarding enhancement of critical thinking power, I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reading instruction first, and then sought the practical and organized method of reading instruction.

In the third chapter, I analyzed the reading-related part from high school textbooks such as 'Korean Language(2 ; the last volume)', 'Korean Reading', and 'Korean Literature'. After analyzing, referring to the teaching method model introduced in second chapter, I abstracted studying points from 'Korean Reading' and 'Korean Literature', which I applied to the reading part of Korean Language(2 ; the last volume)'. I provided the teaching-learning method model which can be practiced in real classes at the conclusion.

And the teaching-learning method model is separately applied from teaching models and practical methods for enhancement of thinking power which are stated in the second chapter.

Reading comprehension for enhancement of thinking power is still unstable in our classroom. This has been resulted from instructor-centered and instructor-led teaching method in 'reading' that is basic factor in Korean studies education. Also this is because our present teaching-learning method depends upon the result, not the process.

To settle the problem, we need instructors organized and detailed teaching strategy which is enhancing the thinking power chapter by chapter. That is to say, instructors need to teach inclusively covering all chapters rather than dig into each chapters only.

I hope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enhancing thinking power in reading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부 록

- I.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
- II. 설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

<보기> 지학사(1), 한샘출판 김윤식(2), 금성교과서(3), 동아출판사 우한용(4), 동아출판사 김열규(5), 대한교과서(6), 대일도서(7), 천재교육(8), 동아서적(9), 민문고(10), 선영사(11), 한샘출판 구인환(12)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시)>

	작품명	지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수
1	진달래꽃	김소월	0		0						0				3
2	도봉	박두진	0				0								2
3	국경의 밤	김동환	0		0				0			0			4
4	유리창1	정지용	0	0						0	0		0	0	6
5	기울	이상	0	0	0				0		0	0	0		7
6	불놀이	주요한	0	0					0		0				4
7	님의 침묵	한용운	0				0		0					0	4
8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0			0	0	0	0	0	0				7
9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0				0								2
10	울음이 타는 강	박재삼	0											0	2
11	풀	김수영	0	0	0		0		0	0	0	0			8
12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0				0		0		0	0		0	6
13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0			0	0			0	0	0	0	7
14	초혼	김소월		0									0		2
15	알 수 없어요	한용운		0		0	0	0		0	0		0		7
16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0			0				0				3
17	난초	이병기	0	0											2
18	설정	이육사		0	0	0	0	0				0			6
19	참회록	윤동주		0							0	0	0		4
20	어서 너는 오너라	박두진		0							0		0		3
21	꽃뭉치	신석정		0							0				2
22	목마와 소녀	박인환		0							0			0	3
23	적군 묘지	구상		0								0			2
24	추억에서	박재삼		0									0		2
25	조국	정완영			0					0		0			3
26	꽃	김춘수			0						0				2
27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0	0	0								3
28	바위	유치환			0	0									2

29	추일서정	김광균				0					0		0	3
30	봉황수	조지훈				0	0	0						3
31	눈물	김현승				0	0	0				0		4
32	눈	김수영				0						0	0	3
33	폭포	김수영					0						0	2
34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0		0					2
35	그 날이 오면	심 훈					0			0				2
36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0			0				2
37	광야	이육사					0						0	2
38	해	박두진						0	0					2
39	새	박남수						0			0	0		3
40	생명의 서	유치환						0		0				2
41	추천사	서정주						0					0	2
42	오월	김영랑						0	0					2
43	깃발	유치환							0		0			2
44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0			0	0	3
45	자화상	서정주								0		0		2
46	목계장터	신경립								0				2
47	산유화	김소월										0		2
48	농무	신경립										0	0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학교과서에 1회 수록 작품(시)>

작품명	지은이	책	작품명	지은이	책	작품명	지은이	책
나의 침실로	이상화	2	초혼	김소월	2	사슴	노천명	1
연시	박용래	2	아침 이미지	박남수	3	바다와 나비	김기림	3
설야	김광균	3	슬픈 구도	신석정	3	오렌지	신동집	3
동천	서정주	3	나비의 여행	정한모	3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3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3	산도화	박목월	3	십자가	윤동주	3
북	김영랑	4	설일	김남조	4	고향	정지용	4
홍부 부부상	박재삼	4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12	봄비	변영로	5
접동새	김소월	5	고풍의상	조지훈	5	달밤	이호우	12
서시	윤동주	5	향수	정지용	5	국화 옆에서	서정주	5
일월	유치환	5	푸르른 날	서정주	5	가을에	정한모	5
청산도	박두진	12	떠나가는 배	박용철	5	가는 길	김소월	6
기항지1	황동규	12	사향	김상옥	6	하관	박목월	6
말	정지용	6	휴전선	박봉우	7	신록	이영도	7
외인촌	김광균	7	청포도	이육사	7	초토의 시	구 상	7
보습 매일 밤이 있었다면	김소월	7	해마다 봄이 오면	조병화	7	향원	박두진	8

백자부	김상옥	8	오감도	이 상	8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박인환	8
풍장1	황동규	8	벚상	김광균	9	귀족도	서정주	9
붉은 고향이르소이다	이상화	9	자모사	정인보	9	산유화	김소월	10
승무	조지훈	10	벼	이성부	10	꿈 속의 벚	이육봉	10
밤바다에서	박재삼	10	작은 짐승	신석정	10	시1	김춘수	11
가정	박목월	11	살구꽃 피는 마을	이호우	11	내 마을 아실 이	김영랑	11
정념의 기	김남조	11	상리과원	서정주	11	민간인	김종삼	11
울릉도	유치환	11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소설)>

	작품명	지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수
1	운수좋은 날	현진건	0		0			0	0		0	0		0	7
2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0	0	0				0	0	0	0			10
3	만세전	염상섭	0	0				0					0	0	5
4	탁류	채만식	0										0	0	3
5	학	황순원	0				0								2
6	광장	최인훈	0	0	0	0		0	0	0	0	0		0	10
7	두 과산	염상섭										0		0	2
8	무정	이광수		0	0	0		0			0		0	0	7
9	혈의 누	이인직	0		0		0	0			0	0			6
10	은세계	이인직		0									0		2
11	태평천하	채만식		0			0			0		0			4
12	목님이 마을의 개	황순원		0	0									0	3
13	역마	김동리		0						0			0		3
14	유예	오상원		0								0		0	3
15	무녀도	김동리			0	0			0						3
16	동백꽃	김유정			0		0	0	0		0				5
1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0									0	2
18	삼대	염상섭				0	0								2
19	눈 이야기	채만식				0		0	0		0				4
20	수난 이대	하근찬					0		0		0				3
21	별	황순원					0				0				2
22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0		0						2
23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0			0				2
24	겨베짖 리	전광용							0		0		0		3
25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0				0	2
26	봄봄	김유정								0		0	0	0	3

<문학교과서에 1회 수록 작품(소설)>

	작품명	지은이	책		작품명	지은이	책
1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2	20	동행	전상국	7
2	나목	박완서	2	2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8
3	비오는 날	손창섭	12	22	어둠의 혼	김원일	8
4	줄	이청준	3	23	바위	김동인	9
5	배따라기	김동인	3	24	광화사	김동인	9
6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4	25	백치 아다다	계용묵	9
7	카인의 후예	황순원	4	26	불꽃	선우휘	9
8	불신 시대	박완서	4	27	눈길	이청준	10
9	까치 소리	김동리	5	28	장마	윤홍길	10
10	수라도	김정환	5	29	풍경	박경리	11
11	고향	현진건	5	30	감자	김동인	11
12	침물선	이청준	5	31	사희촌	김정환	11
13	천변 풍경	박태원	5	32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11
14	소나기	황순원	5	33	무진 기행	김승옥	11
15	순교자	김은국	5	34	만무방	김유정	12
16	홍영	최서해	5	35	바비도	김정환	12
17	붉은 산	김동인	5	36	일락서산	이문구	12
18	북간도	안수길	5	37	오발탄	이범선	6
19	화수분	전영택	5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하시는 수업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1999.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현 용 식

1.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 이상

2. 선생님께서 교육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 ① 교수 방법 ② 교수 내용의 선정 ③ 교수 목표의 설정
④ 평가 방법

3.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업의 형태는?

- ① 문답식 ② 강의식 ③ 토의식 ④ 기타

4. 학생에게 질문시 유도하는 응답의 형태는?

- ① '예' 또는 '아니오'의 진위형 ② 단어 또는 단답 어구형
③ 한 두 문장의 짤막한 서술형 ④ 서너 문장 이상의 비교적 긴 서술형
⑤ 기타

5. 질문 후 응답자의 답의 요구하는 형태는?

10. 위의 8에서 ④를 답하신 후, 9에서 '아니오'를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고력을 함양시킬 만한 적당한 자료가 없다.
- ② 사고력 함양과 관련된 교수 방법을 잘 모른다.
- ③ 임시 등 시험 때문에 부담이 된다.
- ④ 기타 ()

11. '사고력 신장 교육'의 개념과 교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